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RECOVERY OF HOLISTIC CHRISTIAN SPIRITUALITY

written by

YONG GYU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March 30, 2006

RECOVERY OF HOLISTIC CHRISTIAN SPIRITUAL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NG GYU PARK

MARCH 2006

총체적 기독교영성의 회복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박 용 규

2006년 3월

Abstract

Recovery of Holistic Christian Spirituality

Yong Gyo Park

Doctor of Ministry

200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Korean Christianity, one issue in the 21st century is spirituality. But, Many Korean Christians do not appropria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spirituality without reflecting on biblical and theological systematization. This Ministry Focus Paper intends to understand and recover the balanced holistic Christian spirituality accompanied by real life.

First, in Chapter 2, I defined what spirituality is: the meaning and usages in the Bible with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Second, in Chapter 3, I made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anges and characters of each age of Christian history. I found that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spirituality has been distorted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Moreover,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 movement of spirituality has been polarized to mysticism and intellectualism.

Third, in Chapter 4, I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urches' spirituality by investigating the spiritual movement and the Pentecostal movement in Korean Christianity and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spirituality. Korean Christians have become lost to the identity of spirituality because of traditional religions. Moreover, being mixed with the traditional religions, Christian spirituality brought about non-biblical spiritual movement.

Fourth, in Chapter 5, as a project of the holistic Christian spirituality, I focused on the practical suggestions in relation to real life.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of the Christian faith and spirituality and the balanced

spirituality in Christian faith.

Through my research, I can safely define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spirituality by saying that it is not only to present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in the real life but also to holistically accomplish the recovery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world. In this Paper, I suggested my project on how to fulfill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종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풀러 신학교에서의 김세윤 박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짧은 목회현장 속에서 학문적으로 목회를 되돌아보며 신학과 영성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넓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여 자주 한계에 부딪힐 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가창교회 당회원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작은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논문을 지도해주신 권문상 교수님,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태석 목사님, 동역의 기쁨으로 논문자료정리와 타이핑으로 애써주신 이용석 강도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말없이 기도로 헌신해 준 소중한 동역자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하은, 소명이는 저의 기쁨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부모님들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6년 3월 박용규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영성의 개념이해	4
제 1 절 영성의 정의	4
제 2 절 영성의 오해와 용어문제	5
제 3 절 영성의 본질	8
제 4 절 영성의 성경적 이해	11
1. 구약성경의 영성이해	11
가. 관계적 영성	11
나. 역사적 현장의 영성	13
2. 신약성경의 영성이해	15
가. 예수의 영성	15
나. 바울의 영성	16
제 5 절 개혁주의 영성의 신학적 이해	17
1. 이론과 삶을 실천하는 신학으로서의 영성	18
2. 성령과 영성	20
제 3 장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	23
제 1 절 초대교회 영성	23
1. 신플라톤주의 영성운동	24
2. 영지주의 영성운동	27
3. 몬타누스 영성운동	28
4. 노바티안 영성운동	29

제 2 절 중세교회 영성	30
1. 수도원 영성운동	30
2. 스콜라신학의 영성운동	32
3. 체험을 중시하는 기독교 영성운동	33
제 3 절 종교개혁시대 영성	34
1. 신경건주의 영성운동	34
2. 개혁주의 원리에 벗어난 영성운동	35
제 4 절 근현대교회 영성	37
1. 계몽주의 시대의 영성운동	37
2. 영국교회의 영성운동	39
3. 독일 자유주의적 기독교 영성운동	39
제 5 절 현대교회 영성	41
1. 일치와 통합의 영성	42
2. 카리스마 영성	43
3. 사회정의 영성	44
제 4 장 한국교회 영성생활의 실제	46
제 1 절 한국교회의 영성	46
1.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이해	47
2. 한국교회 영성의 배경	49
제 2 절 한국교회의 성령의 이해	50
1. 성령이해의 문제점	50
2. 영성운동과 성령운동의 차이점	53
제 3 절 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영성	55
1. 샤머니즘적 영성	56
2. 불교적 영성	59
3. 유교적 영성	60
제 4 절 한국교회의 탈기독교 영성	62
1. 이원론적 영성	62

2 신비주의 영성	64
3 성장주의 영성	65
제 5 장 총체적 기독교영성의 프로젝트	67
제 1 절 영성의 실천적 조명	67
1. 경건에 대한 이해	68
2. 능력에 대한 이해	70
제 2 절 균형잡힌 영성운동	73
1. 믿음의 행함이 있는 영성	74
2. 말씀으로 변화되는 영성	76
3. 기도로 관계가 회복되는 영성	79
4. 제자로 성숙한 영성	81
5. 공동체로 세워지는 영성	83
제 3 절 신앙생활과 영성	86
1. 고난과 영성	86
2. 섬김과 영성	88
3. 기다림과 영성	90
4. 용서와 영성	92
제 4 절 삶으로 나타나는 영성	95
1.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95
2.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	97
3. 비전에 이끌리는 삶	99
제 6 장 결론	102
참고 문헌	107
Vita	11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내적인 성숙은 따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영성, 영성신학, 영성목회, 영성훈련, 영성교육, 영성개발 같은 다양한 말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다. 수많은 영성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원천이다.¹⁾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교회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왔다. 영성훈련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운동들은 성경의 본질과 배치되고 있으며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을 강조한 탈기독교적인 신비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감각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물질문명을 통한 참 행복과 의미가 충족될 수 없기에 영성신비에로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성은 한국교회의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세미나나 프로그램의 주제에 영성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가 싶을 정도로 영성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80년대 후반 즈음만 해도 영성은 개신교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1) 양창삼, *영성회복의 신학*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5.

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보수·진보할 것 없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한국교회는 개인주의, 성공주의, 영웅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독교 참 복음은 사라지고 뒤튼려진 기독교만 세상에 투영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전통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복적인 영성, 개인주의 영성, 신비주의 영성, 타계주의 영성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²⁾ 따라서 한국교회는 영성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김경재는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영적 위기'이며 이런 영적위기상황은 우리에게 참다운 영적 각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

따라서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탈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영성인 샤머니즘 영성, 기복주의영성, 신비주의적 영성을 극복하고 삶을 동반한 바람직한 기독교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영성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만일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성은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은 불경건한 영성과 영적 혼란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참 영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다.

본 논문은 기독교영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삶을 동반한 바람직한 총체적 영성의 회복운동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삶을 통한 구체적인 영성훈련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독교 영성의 문헌을 통한 이론소개와 정리에만 그쳐서 실제적인 목회현장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인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기독교 영성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바람직한 기독교영성에 대한 본 연구는 올바른 영성회복을 이루는데 단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참된 영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미래의 교회성장과 성숙

2) 이관수, "참된 영성의 점검과 과제," *신학지남* (1994 여름): 56-57.

3)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0), 5-6.

을 위한 목회적 가치를 세우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개념 이해, 성경적·신학적 정의를 내린 다음 바람직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정리하고 기독교 영성의 뿌리를 고찰해 보았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 특히 전통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총제적 기독교 영성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실천적이고 균형잡힌 참된 영성훈련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미래 교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본다.

제 2 장

영성의 개념이해

영성이란 말은 우리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가 독점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한 영역이며 인간의 언어적 한계 너머에 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리에 반(反)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 영과 육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도피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영성이해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성이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확한 영성의 개념이해는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케 만드는 역할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본 장에서는 영성의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영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영성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주의에서 추구하는 영성에 대해서 개념화하려고 한다.

제 1 절 영성의 정의

영성이란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한 영역이며 인간의 언어적 한계 너머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영성은 모든 종교의 정신이나 사상에 적용될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인물과 삶에도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영성'하면 어떤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종교의 절대적인 정신에 따라 살면서 인간의 최고의 덕과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기독교 영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존재가 전제되고 그 하나님

과 인간적 관계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다. 브래들리 한센(Bradly Hansen)은 영성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는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였다.⁴⁾

이 정의는 영성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을 제시해 준다. 첫 번째, 영성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것이다. 영성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꺼내어 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영성은 개인의 내면적 경건이 아니라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영성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을 깨달은 자는 주님의 사랑에 잠긴바 되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을 부단히 추구하며 사는 삶이다. 이러한 삶의 과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성취된다.⁵⁾ 즉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사랑의 관계성이며 동시에 사랑의 실천적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 지닐 수 있는 품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서 열린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 2 절 영성의 오해와 용어문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지적해보면 첫째, 영을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영혼이나 정신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추구하는 입장에서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 아래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대립시키는 것이다. 구원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본래의 고향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에 바탕을 두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두 번째, 현실세계를 떠난 영적 세계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세속을 벗어나서 금욕, 은둔 생활을 주장하는 것인데 소위 도피주의적 영성으로 발전되었다. 세

4) Bradley Hansen, "Christian Spirituality and Spiritual Theology," *Dialogue* 21 (1982), 20.

5) 황화자, "기독교 영성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교육* (1987): 2.

번째, 영성을 인간이성의 세계와 분리시킨 것이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 초월적 세계만을 추구하거나 무아지경에 이르는 신비적 체험으로 이해했다. 그 결과 종교적 광신주의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반지성주의 영성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 비지성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며 복음의 영향력을 제한시키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영성'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는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으로 구분한다. 즉 영과 육, 영과 물질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성령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육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인간자신의 욕심이나 의지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⁷⁾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좇아가는 삶이라고 말한다.

로마제국에서는 영성을 라틴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영'이라는 단어는 소위 Spiritus라는 말로 표현되었고 영적이라는 말은 Spiritualis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서 영성(Spiritualitas)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영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터틀리안이다. 그는 라틴어를 사용한 첫 신학자로서 당시 헬라어로 쓰였던 많은 용어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중 하나가 'Spiritualis'이다.

터틀리안이 로마제국의 서부에서 영성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킬 즈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동부에서는 '영성'을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이다. 이들은 영성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분리시켰는데 첫째 차원은 'πραξις'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확증하는 것이며 사막교부들의 금욕적 훈련으로서의 'πραξις'는 침묵, 기도, 금식, 복종 그리고 따뜻함을 금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원은 개개인이 실천하는 'πραξις'로서의 영성인 *πραξις*였고, 셋째 차원은 *κρυπτη μελετη*(숨은 훈련)라고 불리는 개개인의 기도였다. 그 후 9세기 풀다(Fulda: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던 곳)의 수도사인 칸디두스(Candidus)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즉 Spiritualitas를 Corporalitas 또는 Materialitas, 즉 육체성 또는 물질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⁸⁾

12-16세기까지는 영성을 '표시한다'는 의미로 변형하여 세상적, 즉 세속적인 것을 대적하는 성직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중세신학의 전성기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

6) 정용석 외, *기독교영성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20.

7) 고전 2:14; 롬 8:5; 갈 5:16-18.

8) 정용석 외, *기독교영성의 역사*, 23.

(Thomas Aquinas)의 출현과 함께 주장된 영성에 대한 강조의 필연성은 스콜라주의 신학과 영적신학의 분류를 자아내게 되어 수도원(신비신학)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안점이 되는 묵상생활이었고 스콜라주의는 교리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4세기의 신비주의가 발달하면서 많은 성자의 출현으로 영적인 면을 더 강조하던 신비신학의 심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체험, 영적체험을 기술화 하였다.⁹⁾ 종교개혁 이후 수도원주의가 크게 쇠퇴하였고 개신교에서는 수도원, 신비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영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17세기 청교도영성에서는 성화를 위한 거룩한 경건을 목표로 하여 윤리와 영성의 개념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싸구려 은혜'를 배격하고 영성의 원천을 오직 성경에 두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했고 도덕적 진보와 삶의 변화가 그들의 목표였다.¹⁰⁾ 성경주의 종교개혁 영성을 전승한 17세기의 청교도 영성은 학파들이 신학과 윤리와 영성을 개념적인 면에서 동일화시키면서 개신교의 영성은 방치되거나 말소되었다.

19세기 후반 다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 프랑스의 파리 가톨릭 협회에서 질송(Etienne Gilson)이 영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어권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가 점차 확산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영국성공회, 가톨릭의 부흥운동은 종교적 신비의 관심 속에 체험적인 것과 실천적 삶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20세기 중반에 들면서 개신교에서도 영성의 용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성은 우리의 삶을 떠난 내면적이고 개인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영성으로 사용되어 진다. 총체적 영성은 영성의 영역이 개인의 내면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인 삶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9) 이완재, 영성신학탐구 (서울: 성광문화사, 2001), 140.

10) 송삼용, 영성의 거장들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3), 21.

제 3 절 영성의 본질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며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물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성이란 것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영성을 삶의 태도라고 하기도 하고 삶의 양식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영성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영성은 본질적 측면에서 세속의 영성과 차이가 있다. 세속적인 영성은 자기 수양이나 극기 혹은 내적훈련 등에 의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정신력이 세속적인 영성의 핵심이다. 세속적인 영성은 인간중심이다. 하지만 기독교영성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이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다.

기독교영성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혹은 '숨', 히브리어로는 성령은 '루아흐(רוח)'이며 헬라어로는 '프뉴마(πνευμα)'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바람, 숨, 호흡,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다.

영성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쓴 고든 웨이크필드(Gorden S. Wakefield)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것은 사람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초감각적인 실체들을 향하여 뻗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태도, 신념, 그리고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널리 쓰이게 된 단어"라고 했다.¹¹⁾ 또한 강준민은 "영성이란 성령님 안에서 말씀들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¹²⁾ 그러므로 참된 영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극대화해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성은 영성과 모순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다.¹³⁾

11) Stephen C. Barton, *사복음서의 영성*, 김재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7.

12) 장경철 외, *삼색영성* (서울: 두란노, 2005), 95.

영성의 본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바로 참된 영성의 본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는 무질서한 힘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를 아름답게 하는 힘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성령)이 수면에 운행함으로써 혼돈이 질서로 변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질서를 창조하는 힘이지 무질서의 세계를 만드는 힘이 아니다. 바로 이 질서를 만드는 힘이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회복 및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수평적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힘이요 이것이 영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영성은 관계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룰 수밖에 없다. 영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며 그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다.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위대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관계 회복의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¹³⁾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에베소서 2장 14-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다.

‘관계’라는 개념은 영성의 척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건전한 영성을 소유한 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13) D. D. Weber, *A Passion for Christ: An Evangelical Christolog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89.

14) John Stott,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영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83.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다. 의롭게 산다고 자부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자기 의만을 내세우고 타자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의 영성이었다.

영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중심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영성은 아무리 꾸미고 닦아도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반스(Evance)같은 학자는 영성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강조한다.¹⁵⁾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사람을 만드는데 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새사람되는 것(요 8:32 엡 2:5, 4:22-24 골 3:10)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원받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아가 파괴되거나 자아가 성령으로 대체된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된다. 종종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쯤 즉,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마 16:24)의 말쯤에서 자기부인은 문맥상 자기 죄성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자기파괴’나 ‘자기대체’를 강요하는 말이 아니다.¹⁶⁾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무아지경에 이르거나 인격이 해체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인간성을 부인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충성히 누리는 총체적 삶이다.

영성의 본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정의 개념이다. 프란시스 셰퍼(Franis shaeffer)는 영성을 성화와 동일시하면서 성화는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했다.¹⁷⁾

15) D. Evance, *Spirituality and Human Natu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41.

16) 성인경, “목회자의 바른 영성을 회복하자,” *목회와 신학*, 1999년 1월호, 54.

17) F. A. Shaeffer, *True Spirituality* (Lond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71), 7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격으로 형성되고 능력있는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Gary Thomas)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영성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¹⁸⁾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자아 성취의 길을 고찰한다면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어서 그 분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므로 영성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현존의 삶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회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드리는 자만이 영성에 관계된 삶을 살게 된다.

제 4 절 영성의 성경적 이해

1. 구약성경의 영성이해

구약성경의 영성은 영과 육의 합일체로서 인간과 하나님이 갖는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표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적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그의 기원에 있어서나 그 지속에 있어서나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다. 중요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한 하나님을 닮았다. 그 까닭은 인간이 하나의 인격이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 관계적 영성

구약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다루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인 교제

18) Gary Thomas, *뿌리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전이우 역 (서울: CUP, 2004), 29.

19) Ranald Macaulay and Jerram Barrs, *인간, 하나님의 형상*, 홍치모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출판부, 1997), 16.

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적이다. 하나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²⁰⁾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흠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말은 본래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흠이 본질이지만 인간이 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9절의 “너는 흠이니”라는 표현은 인간은 땅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다 는 것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생령이란 말은 히브리어 ‘네페쉬’(נֶפֶשׁ)나 산 영혼을 의미하는바 생명 있는 자를 가리킨다. 네페쉬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조물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¹⁾

이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품성한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창 3:8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과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다스림의 관계도 끝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가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상태로 되었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가 생기고 고통과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진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이스라엘을 자신이 택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시내산 언약은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루아흐)이 사람들에게 임한 점이나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성막, 성전 등에서도 인간의 교제와 관계를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20) Kenneth Boa, *기독교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역 (서울: 디모데출판사, 2005), 30.

21)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28.

하나님의 관계의 요청을 거절하고 패역하여지고 말았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돌아오라”였다.²²⁾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진 인간의 존재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참된 교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며 그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으로서 이루어지는 영적관계이다.

나. 역사적 현장의 영성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특징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큼 자신의 역사현실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자각과 반성을 철저히 한 민족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민족들은 자신들의 성경 속에서 역사라는 개념규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화 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도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실에 영적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창조해간 민족이었다.²³⁾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역사였고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기록은 해석된 역사이며 그 해석된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희망을 추구했던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머리로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 내거나 추상화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구약 종교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 산물이거나 철학적 사색의 결론이 아니며 오직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찾는 자만이 만나시는 분일 뿐이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틀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났던 것이다. 구약성경이 말하는 영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나 역사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스라엘 영성의 출발점은 포착하기 어려운 실재로서의 야훼인식이고 이스라엘 영성이해의 장소는 야훼의 이스라엘 해방역사에 있으며 이스라엘 영성의 목표는 신의 형상을 지닌 평등 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보았

22) 대표적 구절은 사 3:16; 렘 3:4, 12, 14, 22; 호 14:1; 율 2:12; 속 14; 말 3:7 등이다.

23)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303.

다.²⁴⁾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간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의지와 뜻을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첫째, 출애굽사건이다. 이는 억압에서 자유로, 무덤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는 사건이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민중의 억압에서 해방 받은 역사를 기술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는 최종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출애굽기 19-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²⁵⁾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뿌리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²⁶⁾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의 출발점을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역사의 경험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활동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둘째, 제 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귀향이다. 이 사건은 과거 애굽에서 억눌린 자를 해방시킨 구원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제 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역사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하셨다. 옛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계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옛 계약을 완전히 파기했다(렘 31:30).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계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생각이나 관념에서 머무르는 신비적인 합일의 영성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삶의 현장 속에서 주권자,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24) 김이곤, "구약성서에 나타난 영성개념," *기독교사상*, 1988년 4월호, 27.

25)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150.

26) E. Fackenheim, *God's Presence in History* (New York: Harper and Row, 1970), 8.

2. 신약성경의 영성이해

가. 예수의 영성

신약성경에 나타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에 기초하며 또한 그의 삶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영성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예수께서는 최후 만찬의 석상에서 다가오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한편의 극으로 설명해 주었다(막 14:18-25 병행절들). 최후만찬의 시점, 그때 쓰인 재료들, 예수의 동작 등은 모두 극적 상징성을 가진 것인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그의 죽음이 구원사건으로서 그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낸다.²⁷⁾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 낮아지심, 겸손의 실천과 나누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뿌리이며 모범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의 삶은 영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은 자신의 죽음을 그 자체로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될 것으로 보셨다. 그 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에 이르는 통로였다.²⁸⁾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과 순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모든 형태의 공로주의와 공명심에 대한 거부에서 잘 표현된다. 그는 기도생활에 은밀했고 사탄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됨에서 오는 능력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같은 자기 비움은 섬김의 길에서 절정에 이른다. 제자들의 발 씻김(요 13:1-11)과 대속의 말씀은 섬김의 영성을 실천한 것이다.²⁹⁾ 결국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섬김의 생활화였으며 그 섬김의 생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비움과 순종은 예수의 중요한 영성적 특징이다.

예수님의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은 영성적인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영성과 윤리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았다. 영성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그 영성은 윤리

27)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31.

28) Henri J. M. Nouwen, *영성의 길*, 김명희 역 (서울: IVP, 2002), 97.

29) 김영봉, *예수의 영성, 기독교 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114.

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산상수훈(마 5-7장)의 말씀에서 교훈하셨다. 산상수훈은 윤리적 영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이다. 예수께서 그 당시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예수의 산상수훈의 윤리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짓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제자들의 내면적인 자세와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행동에 우선함을 말씀하신다.³⁰⁾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사모하면서도 내면에 섬뚫는 능력을 열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영성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에 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마 11:29)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다.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을 품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인류를 품기 위해서이다. 바다는 모든 것들보다 낮은 데 있다. 바다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변화시킨다.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다.³¹⁾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적 삶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근본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나. 바울의 영성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영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했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30) 김승욱, *허심유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9.

31) 강준민, *뿌리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1998), 185.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받아야 할 까닭은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고후 4:4).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연합이요 일치였다(갈 2:20).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 대한 복종 및 그와의 교제 및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5:17).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영적인 삶이었다. 즉,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 그 곳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살듯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되어 창조주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것이다.³²⁾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자기희생의 존재양식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된 삶의 영성이었다.

제 5 절 개혁주의 영성의 신학적 이해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말하자면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해 가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신학의 꽃은 생명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 또는 신성과 인간과의 관계성 문제는 신학과 영성문제의 관건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³³⁾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명이 없는 신학이 난무한 듯하다. 교회의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한 탁상신학이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론신학이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론 신학이 침투해 들어왔으며 성공주의 신학도 활개를 치고 있다.

32)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157.

33) 김경재, *영성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35.

1. 이론과 삶을 실천하는 신학으로서의 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질상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갈망하며(시 42:1-2)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시 23:1-2)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영생을 얻고(요 6:55-56) 성령이 충만할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않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추구해 왔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960년대 이후로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실천과 신학의 양면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톨릭은 수도원이나 신비주의적 경건운동까지 계속 수정 보완함으로써 영성신학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란 학문의 대상일 수 없다는 생각에 학문적인 접근을 회피했다. 그 결과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영성'이란 말이 가톨릭의 용어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심지어 영성이라는 자체에서 풍기는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왔다. 물론 개혁주의자들과 교회에서는 칼빈의 전통에 따라 영성이란 말 대신 경건 혹은 헌신이라는 말을 채용함으로써 영성에 대한 간접적인 관심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3년 WCC 밴쿠버 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기독교 대회에서 '영성'이 그 주제로 채택될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영향에 의해 개신교 내에서도 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성신학은 이제 새로운 학문의 영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엄두섭은 "영성신학은 신앙인들의 초자연적 생명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원리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문"³⁴⁾이라고 하였다.

기독교는 성령이 역사하는 종교이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생명의 종교라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영성신학의 최상의 과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영성신학의 생명이다.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

34) 엄두섭, *영성생활의 향기* (서울: 은성, 1996), 165.

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다. 그러므로 영성신학은 이론과 삶을 실천하는 신학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신학의 이론적 근거는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생명력이 넘쳤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다. 사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 함으로써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칭송을 더해갔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초대교회 당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그나티우스에게 트라야누스 황제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현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분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힌 분이십니다.”³⁵⁾ 이그나티우스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렸다. 심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성경적 영성은 칼빈이 강조하는바 경건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룬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경건생활이란 신비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삶, 그 말씀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³⁶⁾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일체의 인간적인 견해를 능가하는 확실한 신앙, 곧 영원히 불변하는 신앙을 주셨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 곧 경건이다.

구원론적으로 보면 생명적 영성은 성화와 통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감정 뿐 아니라,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전존재를 주관하시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회적인 존재로 이웃과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땅과 자연만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삶이 곧 성화요 영성이다.³⁷⁾ 이론과 삶을 실천하는 신학으로서의 영성은

35) Geoffrey Hanks, *교회를 빛낸 거인들*,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13.

3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상*, 김종홍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130.

37)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24.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생동력을 가지고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2. 성령과 영성

기독교 영성은 세속주의적인 정신성과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속주의적인 정신성은 어떤 인간의 정신이나 삶을 본받아 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훈련 그리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사상을 본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그리고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의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기독교적인 영성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믿음의 중요한 연습인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 '루아흐'는 '숨을 쉬다'이며 '숨'이라는 뜻과 '바람'이라는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루아흐'가 '숨'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대체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목숨의 개념과 관련을 가지며 이 때에 성령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와 생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하에서만 그 진실한 존재의 뜻을 가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³⁸⁾ 그러므로 성령은 진정한 영성개발의 주최자가 되시며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독교 영성의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 신약성경에는 성령을 '프뉴마(πνευμα)'라고 하는데 이 '프뉴마'라는 단어는 본래 '바람' 혹은 '숨', '호흡'을 뜻하는 중성명사이다. 구약의 '루아흐'에 해당하는 말이다. 성령을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다만 '신비한 힘', '감화력'으로 여기기도 했

38)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0), 137-138.

으나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제삼위격에 해당하는 분명한 인격자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로 묶어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와 같은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성령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³⁹⁾

롬은 성령 사역에 대하여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현존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이 애매모호한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의 현존은 명백하고 강력하며 친숙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매개체 또는 중재자 속에 현존해 계신다.⁴⁰⁾

영성과 관련하여 매개체 중재자란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다. 성령의 현존은 말씀과 성례전, 신앙, 사람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성령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현존함으로써 그들을 사로잡고 영감을 주며 변화시킨다고 한다.⁴¹⁾ 성령이 이처럼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아 타락하여 범죄한 인류에게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다(요 16:8-9). 범죄한 인간의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떠나고(창 6:3) 영적으로 쇠퇴한다(살전 5:19).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사 59:2)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같음을 빛는다.(롬 8:7)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롬 8:8) 죄의 삶인 사망을 당하게 된다(롬 8:6).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대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고백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전 3:16). 이로써 성령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와의 신비

39) 김균진, *성령의 본체,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248.

40) Arnold B. Come, *인간의 영과 성령*, 김성민 역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4), 162.

41) 황승룡, *개혁교회와 성령*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94.

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에 성령 안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성령은 우리를 단번에 거룩케 하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엡 4:30).⁴²⁾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재하는 육신의 정욕은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⁴³⁾ 여기에 기독교 개인 영성의 본질이 들어있다.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 육에 속한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공동체와 자연을 향하여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인영성의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이다.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신다.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⁴⁴⁾

42) 나용화, *영성과 경건*, 99.

43)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78.

44) 김상복, *성령님 사랑해요* (서울: 햇불, 1993), 140.

제 3 장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

역사란 세기 마다 나타난 사건들을 취사선택하여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제공하는 근본 가치를 찾는 작업이다. 이런 역사적 입장에서 영성운동을 본다면 영성운동은 각 시대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살피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영적인 특징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교회사나 역사신학 입장에서 본 영성운동은 교회나 교회가 전파한 내용들 중 영성에 관계된 것들이 나라와 시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전해진 것, 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가치 있는 영성의 흔적들을 도출해 내고 이것을 통해 오늘의 영성을 정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경고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후로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세워져나갈 때는 항상 그에 반하는 영성운동이 발흥하여 기독교 진리를 방해했기에 왜곡된 영성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각 시대마다 나타난 기독교 영성운동의 변화와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 했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제 1 절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를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5세기 기독교의 확정 시기까지로 볼 때 초대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출발점이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은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창출한 사건이며 교회가 탄생된 배경임을 말해 주고 있다. 부활 사건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자들은 당시 서기관들과 제사장, 장로들을 무서워하여 떨고 있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

난 제자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들의 공동체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다(행 2:46-47).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의 공생애의 형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왜 초대교회는 이것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예수의 오심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러한 체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원초적인 것이었다. 사도들의 지도 아래 교회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한 두 가지 의식을 유지해 나간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이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전체 교인들에게 공포하는 의미를 갖는다.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봉헌된 떡을 떼어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다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했다.⁴⁵⁾ 당시 초대교회 영성운동은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 이러한 성례전 중심의 예배는 초대교회 영성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세기 중엽부터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식어갔다. 더구나 많은 이방인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약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초대교회 탈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되었고 기독교 자체를 뒤흔드는 이단사상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1. 신플라톤주의 영성운동

초대교회는 강력한 이단적 사설들로부터 도전을 많이 겪었다. 이들은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론과 유사한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미혹하였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하는 권력층에게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

45) 구대일, *거룩한 몸부림* (서울: 멘토, 2005), 97.

하기 위해 종말, 성육신과 고난,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 기독교의 철학적 재해석에는 플라톤의 사상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플라톤의 사상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기 플라톤 사상은 이원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만물의 원형으로서 이데아를 말한다. 이 이데아는 선의 세계이며 참의 세계로서 하나뿐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반하는 세계가 현상계이다. 현상계는 원형인 이데아의 모형으로서 물질적인 악의 세계이며 언제나 원형인 이데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움을 에로스라고 부른다. 현상계는 이 에로스에 의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향하여 움직여 감으로서 현상계에서 가졌던 망각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망각이 점점 사라지고 이데아의 기억이 살아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함으로써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원론 사상은 물질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욕과 절제를 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적인 윤리관을 갖게 된다.

중기 플라톤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데아와 현상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고리를 도입시켰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데아가 로고스의 개념을 빌려서 현상세계의 인간, 혹은 물질세계와 연결짓는다. 기독교는 중기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로고스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로고스 기독교론이다. 그러나 두 사상 가운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후기 플라톤 사상의 특징은 플로티누스의 '에네아데스'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에 의하면 만물은 선한 존재인 일자가 있는데 이 일자는 충만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충만한 일자'는 넘쳐흐르는데 이것을 유출이라고 부른다. 선한 일자가 넘쳐흘러 악한 물질세계에 머물게 됨으로 물질세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플로티누스는 물질 유출의 순서를 일자로부터 정신이 나오고, 정신으로부터 영이 나오고, 영으로부터 물질이 나왔다고 보았다.⁴⁶⁾

이런 플라톤의 사상은 처음엔 철학적 운동이었으나 초대교회 400년 동안에 신플라톤주의파는 일종의 종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즉,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신적으로 떨어져 살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과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과의 관계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다. 이 영원한 세계와의 교통은 구원을

46) 차종순, *교리사*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3), 38.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이 지상의 엄격하고 통제된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이 탈기독교적인 영성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이성적이며 철학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으며, 이러한 사고의 영향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영성과 플라톤적 탈기독교 영성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플라톤 사상은 유클로스의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구약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하고 있다. 둘째 플라톤 사상은 물질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지만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셋째 플라톤 사상은 이데아 존재를 먼저 다루고 현상계를 다룸으로 영혼의 선재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지어짐을 말하고 있다. 영혼의 선재를 말하는 플라톤 사상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넷째 플라톤 사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을 로고스 씨앗을 가진 인간에게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기독교론은 철학적 중간역할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구약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요 1:1).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 성호의 계시는 구원계시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계시가 다윗의 메시아 전승과 인자 전승, 그리고 지혜 전승을 통해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구약 전승의 성취로서 예수의 공생애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여주는 기독교론은 구약계시의 완성으로서의 성육신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 사상과 가장 다른 점이다. 기독교인들이 영향 받기 쉬운 플라톤 사상과 성경적인 영성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탈기독교적인 영성개념을 채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영지주의 영성운동

영지주의와의 싸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였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메시지는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흡수당할 만큼 기독교와 유사성을 지닌 강한 유혹이었고 그로 인해서 탈기독교 영성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영성운동은 기독교가 겪은 가장 어려운 시련 중에 하나였다.

영지주의는 하나의 혼합주의이다. 영지주의는 알렉산더 통치 이후 한 지역의 고유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와 뒤섞여서 여러 지역으로 떠돌아다님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는 헬라화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의 기본 방향은 헬라철학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대 사람들의 구원론적인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사용하였고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가입함으로써 물질을 경멸하고 영적인 도약을 위한 윤리적인 훈련을 정당화시켰으며 바벨론의 점성술과 천문학적 신비성을 결합해서 초월성을 갖게 하였고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마술을 사용해서 현혹케 하는 요술을 갖추었다.⁴⁷⁾

그들의 특색을 정리하면 구원에 관한 신비지식을 갖는 종교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한 구원보다는 금욕주의적인 노력으로 힘들여서 얻은 지식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식은 '비밀의 지식'인데 그것은 영지주의단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배워야만 올라가게 되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 데, 즉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물질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였으며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도 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혼인이나 음식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성적인 문란까지도 정당화시키는 자유방임주의 형태를 취하였다. 특히 자유방임주의는 교회의 윤리성을 무너뜨리는 주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사상과 행위는 비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오늘날 구원과 계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47) 차종순, *교리사*, 58.

영성운동은 환상적인 탈기독교 영성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 영성운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들의 오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창조론에 문제가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완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온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선재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며 이 선재적인 창조의 타락의 결과로서 물질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경에 대한 우의적인 해석과 숫자풀이이다. 셋째 이 세상을 악한 물질로 보고 이 세상의 창조자도 악한 자라 함으로써 구약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구약성경을 부인한다. 넷째 그리스도와 예수를 이원론적으로 구별 함으로써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인 에온이었다고 말한다. 즉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 이것은 신론과 기독교론에 있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다섯째 구원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보다는 점성술적인 영지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의 영성은 이원론에 입각해서 구원을 영혼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육체로 짓는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초대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영성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영지주의 영성은 패배주의적인 영성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게 됨으로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을 초월하는 독단적인 초월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탈기독교적 영성운동의 도전에 사도들은 참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때 쓰인 성경이 바로 요한서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음을 증거하였다.

3. 몬타누스 영성운동

몬타누스 운동은 일종의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이었다. 2세기 중엽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도 식어갔다. 또한 기독교 박해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가 급선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시대도 끝났으며 이제는 성령

이 이 시대를 움직여 간다고 선언했다.⁴⁸⁾

그는 155년경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이미 이교에서 신비스런 황홀경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신비적인 체험은 종종 예언 또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예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마치 새로운 계시로서 성령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로고스의 수육이었던 것과 같이 몬타누스 자신이야말로 성령이 몸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⁴⁹⁾ 그들은 156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재림 공동체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엄격한 윤리규범에 따라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몬타누스의 탈기독교 영성운동은 삼시간에 큰 호응을 얻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빠져 제도화되어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탈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것은 중세의 프란시스 운동, 재세례파 운동, 각종 신비주의 영성운동의 원조가 되었으며 또한 한국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의 뿌리라고 할 것이다.

4. 노바티안 영성운동

노바티안의 영성운동은 데시우스 황제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데시우스 황제는 249년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로마의 쇠퇴의 원인을 로마의 백성이 옛 잡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의 옛 영광을 되찾는 길은 옛 종교를 회복하는 일이라 여겼다. 그의 종교정책은 전제국의 백성들이 잡신을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⁵⁰⁾ 데시우스는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은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데시우스 상 앞에서 향불을 피워야 했다. 데시우스의 기독교 박해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던 명예로운 명칭은 고백자라는 말이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다.

48) 구대일, *거룩한 몸부림*, 94.

49) 홍치모, "성령과 경건 운동의 사적고찰," *신학지남* (1979 봄): 60.

50) 이형기, *기독교회사 I*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4), 161.

데시우스 박해는 짧았지만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 어려운 박해 자체보다도 박해 후에 교회가 당한 문제였다. 박해 기간 동안에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기독교 박해 때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했다. 성경책을 태우기도 하고 이교의 신상을 숭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감독들은 자신들만이 타락한 자들을 회복시킬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독만이 일률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Cyprian)과 로마교회의 장로 노바티안(Novatian)이다. 키프리안은 박해 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 서신 연락을 통하여 박해 현지 성도들을 계속해서 지도하였는데 박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그 권위에 대한 큰 약점이었다. 이 약점과 키프리안을 미워하는 세력들 때문에 키프리안을 따르는 분파와 '고백자들'을 따르는 분파로 나누어져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다. 키프리안은 '타락한 자들'을 쉽게 회복시키는데 반대했다. 그의 엄격주의는 터툴리안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어야 하며 우상숭배자들과 배교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바티안은 키프리안보다 더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로마 감독인 고넬료가 '타락한 자들'을 너무 쉽게 교회에 들어오게 했다고 그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런 노바티안의 사상은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세속과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하지는 소수 무리들의 영성운동이었으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통이다. 서방교회는 이처럼 초기부터 '타락한 자들'의 회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런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세와 이것을 실패한 자들의 처리문제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기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질서와 실천을 강조하는 서방교회의 중요한 영성운동은 교회의 역사 속에 탈기독교 영성의 하나인 율법주의적 영성을 낳게 되었다.

제 2 절 중세 교회 영성

1. 수도원 영성운동

수도원 영성운동은 타의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313)이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박해가 사라지게 되었다. 박해의 현장이었던 카타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순수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인 자유와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성직자들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갖가지 특권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았다.

수도원 운동은 이러한 세속적 이교적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반작용이다. 과거의 순수했던 신앙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명상, 묵상, 기도 같은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을 쳤다. 처음부터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영성운동은 4세기에 이르러 시리아 전역과 이집트 나일강 주변의 사막 지대까지 확대되어 나간다. 이들은 나중에 '홀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데 이 단어에서 '수도원 제도'가 나왔다.⁵¹⁾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수도원 제도를 만든 원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의 평신도 영성 실체는 그저 혼자서 하는 영성수련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단체를 만들어 영성운동으로 되어버린 것이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교권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적인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세속과 타협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을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 했었다는 면에서 수도원 운동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말 수도원의 타락과 개혁까지 계속 이어져 갔다. 최초 수도자 성 안토니(St. Antony, 251-356)의 이집트의 수도원 창설에서부터 시작하여, 6세기에 이르러 베네딕트(Benedictus)가 수도원을 세우고 12세기에 시스터시안들이 수도원에 부흥을 이루었고, 13세기에 이르러 탁발승인 프란시스 교단의 출현과 도미니크 교단의 결성으로 그 찬란한 절정을 이룬다.⁵²⁾

그러나 중세의 후반에 들어서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교권싸움과 성직매매 등 교권이 극도로 타락하였다. 경건은 사라지고 수사와 수녀들의 관계로 교아원의 시초가 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기독교의 구원이 금욕적인 경향을 띄게 됨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교인을 이끌었으며 여기에 공덕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또한 세속의

51) 구대일, *거룩한 몸부림*, 110.

52) 김경재, *영성신학서설*, 122.

삶을 경멸하는 등 도덕적인 이중성과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탈기독교 영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세의 수도원들은 내부적인 갈등에서 오는 폐쇄성으로 인해 스콜라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2. 스콜라 신학의 영성운동

12세기의 스콜라주의가 태동하기 전까지는 영성만 있었고 이론적인 의미에서 신학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수도원은 경건과 삶을 지탱해주고 발전시키는 범위에서만 신학활동이 허용되었다. 스콜라철학자들은 기독교의 신앙적 내용을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등 신앙을 철학과 연결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논리를 빌어서 증명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자연과 영혼의 밀접하고도 단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와 영계의 실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스콜라신학자들은 자연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며 영계의 신비를 매개하거나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자연은 영적인 신비의 진리를 계시하거나 보여주는 마스크와 같은 것이며 동시에 영계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매개체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관찰은 인간의 영혼이 영계로 가는 신비한 순례의 길이요 무대였다. 그리하여 순례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다.⁵³⁾

초기 스콜라주의로부터 스콜라주의신학 전통을 통하여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는 실재론과 유명론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 단어는 보편이라는 말이다. '보편'이란 참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논리학의 주안점이었다. 감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습득되는 모든 지식을 부정하고 오직 사유적인 독립적 존재를 참다운 실체로 보는 견해를 실재론이라고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나 헤겔의 세계정신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신학에 적용시켜 온전한 실재론을 전개시켰다. 하지만 보편자는 사물의 실재와는 아무런 일치도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허구로 간주하는 주장이 실재론에 대한 반발로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이것을 이용한 아퀴나스의 신학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중세신학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성인 신지식 수단으

53) 이장식, "기독교 영성의 사적 고찰," *신앙과 신학* 4 (1988): 118.

로 인정됨으로 신앙의 약화를 초래하는 자연신학이 범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학은 교회 지상주의를 가능케 하였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부채질하였고 계시보다 이성에 집착함으로써 탈기독교영성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

3. 체험을 중시하는 기독교 영성운동

어거스틴 이후 로마 교회는 증세 암흑기를 맞는다. 교황 시대는 부패의 온상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타락한 정치적, 종교적, 체험적 영성의 물줄기는 지하로 파고들어 암반 위를 흐르면서 생수가 되어 갈한 많은 심령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이는 수도원 제도를 통한 전수였으며 수많은 체험영성의 실천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아시시의 프란체스코(Francis of Assisi), 노리치의 줄리안(Junlian of Norwich),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A Kempis) 등이 있다. 베네딕트의 수도원 제도는 교육과 목회 중심의 어거스틴 수도원과 공동체의 묵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카투스안(Cathusian) 수도원과 함께 증세 말까지 당시의 영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들 영성 수련자들 중에는 무식한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신비주의자로 취급되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인간의 본성적인 정서를 회상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스킨라 철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체험에 의한 하나님과의 합일을 추구하였고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를 강조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과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세의 영성운동가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교를 통해서 신과 신비적인 연합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영성주의자들은 몰아의 경지에 빠져 인간 영혼과 신성이 연합하는 순간 기가 막힌 황홀감 즉 엑스타시를 느낀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범신론적인 연합을 의미함으로 이것은 탈선된 영성 운동이었다.⁵⁴⁾

그러나 영성론자들이 소개하는 다양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은 그것이 초월적인

54) 홍치모, "성령과 경건 운동의 사적고찰," 64.

경험이기 때문에 용납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측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신비적 체험, 초월적 체험, 종교적 체험 등과 같이 종교적인 체험 자체를 목표로 하는 모든 영성은 기독교 영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모든 체험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유추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다.⁵⁵⁾ 기독교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다. 이 은총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제 3 절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1. 신경건주의 영성운동

중세 교회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영적인 암흑시대였다. 실제적인 영적 암흑의 시기는 9세기 초에서 11세기 초까지 150년간을 의미한다. 그 시대에는 세속군주들이 수도원이나 제도권교회를 장악했던 시대로서 교권이나 수도원장 등은 그 권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세속 군주들에게 의존해야 했으며 그 결과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신경건주의 운동이 나타난다. 종교개혁자 칼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종교적으로 폭발전야에 있을 만큼 카톨릭의 만행이 극에 달했고 경건주의 사상이 흥미했다.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인문주의가 성행하여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당시 스콜라철학은 지성주의로 치달았고 수도원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 로마교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는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베티의 게르하르트 그루테(Gerhard Groot)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했다. 특히 그루테는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다. 자신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지식의 근원과 여러분의 삶의 모범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⁵⁶⁾ 그는 진정한

55) Alister E. McGrath, *Justification by Faith: What It Means for Us Today*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8), 13.

56)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의회, 1986), 133.

지식을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간주했다. 이에 많은 평신도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새로운 영성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런 양상이 14세기 후반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화란까지 전해졌다. 이 운동을 가리켜 '신경건주의 운동'이라 칭한다. 이 운동이 주창한 내용은 '그리스도께로의 회귀', '개인적인경건' '공동생활을 통한 자급자족' 등이었다. 그들은 스콜라철학의 사변적이고 지적인 면을 철저히 경계하고 영성의 원천을 오직 성경에 두었다.

신경건운동은 영성의 한 흐름으로서 15-16세기 유럽 곳곳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신경건 운동의 산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상은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였다. 그의 저작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교과서이다. 그의 영성 사상은 이미 성행하고 있는 신경건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그것은 이미 신경건 운동의 형제자매 공동체에서 되어진 가르침과 잠언들이 기초가 되어 경건생활을 조직화한 작품이다. 신경건 운동의 영향은 에라스무스(Erasmus) 학파나 루터(M. Luther)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칼빈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따라서 칼빈이 경건을 강조한 이유나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칼빈은 신경건 운동이나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의 영성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의 영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신경건주의자들의 수도원 영성을 배격하고 오직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삶 속에서의 영성을 추구했다.

신경건주의 영성운동이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이 지나치게 교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지식적 영성을 삶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열의와 꿈은 경건운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영성으로서는 부족함이 남아 있다. 신경건운동의 영성 역시 개인적인 경건과 신앙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중세의 신비주의 영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⁵⁷⁾

2. 개혁주의 원리에 벗어난 영성운동

종교개혁은 16세기 당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개혁가들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질문했고 그 신앙이 당시 사회와 문

57) 송삼용, *영성의 거장들*, 556.

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생활방식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지를 질문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당시 가톨릭과 재세례파 등 성경을 떠난 자들을 비판했고 초대교부들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당시 문화를 창의적으로 대항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영성은 16세기 이후 태동한 근대적 서구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가 되었다. 개혁주의자들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감동에 입각한 영성이다. 하나님을 이 우주와 역사의 창조주요 섭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주권적 의지로서 무에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카이퍼(A. Kuyper)가 피력한 바와 같이 우주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행된다.⁵⁸⁾

그러므로 개혁주의 영성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삶 속에서 매일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영적인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적인 능력이 진정한 영성이다. 나아가서 영적인 성숙과 회복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 선포의 삶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성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지 초월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인간의 역사참여와 변혁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⁵⁹⁾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룬 경건이란 신비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말한다.

참된 경건은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이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된 삶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경건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영성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신학은 다시 사변적으로 기울었다. 개혁자들의 영성을 전수 개발하기보다 각자의 신학을 옹호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앞을 다투었다.

더구나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계몽주의사상과 과학적 합리주의 영향으로 신학은 논쟁의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에 정통신학의 경건생활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 운동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들은 스콜라적인 사변신학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과 감성의 중요성을 고수하고 거기다가 금욕

58)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9), 9-14.

59)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82.

적 자세를 부과시켰다. 경건주의 지도자인 독일의 스페너(P. J. Spener)는 교회의 고갈된 영적 환멸을 느끼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경건주의 역시 정통신학 우편에 밀려 있는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신앙의 경건을 불러일으키고 목회자들의 영적인 각성과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증생과 개인의 공로나 영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신비적인 영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건주의 영성은 신비적인 색채를 띠기는 했으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함으로 맹목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의 갱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면을 무시한 결과 그들이 추구한 깊은 영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것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물론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은 영국의 웨슬레에게 미쳐서 18세기 부흥운동의 촉진제 역할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경건주의는 지나친 주관주의, 분리주의, 율법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도피 등을 강조함으로써 영성을 정통신학의 중심으로 이끌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개혁주의 영성 신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목표 때문에 영성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한다. 따라서 영성신학은 신학과 삶을 연결하는 실천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제 4 절 근현대교회 영성

1. 계몽주의 시대의 영성운동

18세기까지 유럽은 정통주의 신학과 교리 그리고 교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정통주의 시대는 아주 격렬한 말싸움과 논쟁이 있었던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주의 시대를 교회논쟁시대 또는 신조시대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30년 전쟁을 겪음으로서 유럽은 진리의 표준이 성경이나 신학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이신주의와 프랑스의 자연주의, 독일의 합리주의를 산출하였다.

영국의 자연신론은 세계를 창조한 신이 세계 안에 내재하지 않고 초월해 있어서 세계는 저절로 운행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사상인데, 이것은 뉴턴적 우주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내용은 구속자와 증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용납할 여지가 없어졌으며 하나님은 세계를 불변적인 기계적 질서에 따라 운행되도록 법칙을 세운 인격적인 '제 일 원인'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 종교를 찾아내는 일이다. 즉 과학적인 사고와 조화되는 종교, 초자연적인 것과 내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해방된 종교를 이룩하는 것이다.⁶⁰⁾

독일의 합리주의는 자연신론과 초자연적 계시와의 사이를 조정한 라이프니츠(G. W. Leibniz)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성에 의해 실제로 증명될 수 있다고 했다. 신은 최고의 원자로서 모든 원자의 창조자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은 단순히 완전한 선의 결핍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선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와 인간을 평가함에 있어 적극적인 낙관주의를 표명했다.

또한 프랑스의 자연주의는 영국의 자연신론과 많은 점에서 일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이성종교와 자연종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연신론자들 중에는 자연종교를 계시종교와 관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프랑스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⁶¹⁾

따라서 자율, 이성, 인간의 본성과 자연, 낙관적 진보주의와 과학주의, 관용주의 및 인류역사와 우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한가로운 이신주의적 신관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성을 말해준다. 17세기 정통주의를 뒤집어 놓은 계몽주의는 복음과 계시에 입각한 초월적 계시를 상실하였고 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 심판, 종말을 망각한 탈기독교 영성이었다. 인간의 이성, 국가, 세속적인 문화가치, 나아가서는 낙관적 사관과 사회관이 시대의 기독교를 물들였다. 계몽주의 정신이 독일 개신교에 깊이 침투하여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을 파괴시키고 한편으로는 성경비평학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상적 감성주의를 조장하게 되었다.

60) 김수학, *개혁파 역사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92.

61) Ibid., 196.

2. 영국교회의 영성운동

독일 다음으로 영성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영국이었다.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계몽주의사상은 영국에 파급되어 엄격했던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를 여지없이 강타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빈민층이 형성되었다. 영국에서는 생명력 없는 영국국교와 자연신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리교 부흥운동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영적운동은 당시 사회와 국가 내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히 부패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영적침체 속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 영적각성 운동을 일으켰다.

존 웨슬레(John Wesley), 찰스 웨슬레(Charles Wesley), 그리고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였다. 특히 존 웨슬레의 영성은 중요하다. 그의 영성은 경건주의 영성에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겸한 영성운동을 전개했다. 즉, 신앙과 인간적인 노력, 신비주의와 행동주의의 두 극단의 종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도와 찬송, 성서와 설교가 강조되었고 성만찬도 등한시 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⁶²⁾ 웨슬레 신학의 중심은 “구원, 믿음, 그리고 선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웨슬레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성결 곧 완전한 믿음이다. 웨슬레의 신학에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견해이다. 웨슬레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즉 선행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례의 은혜에 의해 강화된다. 웨슬레의 영성은 개인의 실존적 차원의 영성을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현실에로의 영성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물론 웨슬레의 영성운동이 전통적으로 영국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지만 구원과 성결을 인간의 행위에 둬으로써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경험론적인 신앙이해가 주관주의적 신앙을 야기시키기 쉽고 종교의 권위를 객관적 권위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위치시킴으로써 증세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3. 독일 자유주의적 기독교 영성운동

19세기 유럽의 개신교 중 독일의 기독교가 가장 자유주의적 영성을 보였다. 독일

62) 박근원, “제3세계의 교회와 영성,” *기독교사상*, 1987년 6월호, 102.

63)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7), 272-279.

의 자유주의적 개신교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칸트(Kant)에서부터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는 실천이성의 요청에 대응하는 신 존재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 실천이성이 인정하는 가치의 세계에 부합하는 한계 안에서 기독교를 재평가하였다. 따라서 복음에 기초한 신학이 지니는 초월적 차원들이 제거되었다. 쉴라이어르마허(Schleiermacher)는 선형적 종교감정 및 직관을 칸트의 실천이성의 자리에 대입시키므로 기독교를 경멸하는 문화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직접적 자아의식을 이론이성의 추상작업이나 실천이성의 선·악의 갈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절대의존 감정이 특히 기독교에서 잘 나타난 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식이 가장 충만했던 자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절대의존 감정의 절정을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본다. 쉴라이어르마허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험 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면서 신조나 성경보다도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였다. 그는 또 죄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나 구속은 죄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⁶⁴⁾

헤겔(Hegel)의 경우는 정신의 자기운동의 과정 속에 17세기의 정통주의신학,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칸트의 실천이성신학, 쉴라이어르마허적 감정신학 등을 포괄하였다. 그는 기독교의 계시와 신학을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사와 격리시키지 않고 동일한 정신의 자기현현으로 보려다가 신학을 완전히 철학으로 지양 및 연장시켰고 구속사와 일반 역사를 하나로 보았으며, 교회와 사회가 하나의 인류 공동체로 통폐합 되었다. 따라서 헤겔에게 있어서는 계시 및 기독교 신학의 특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스트라우스(Strauss)는 헤겔의 좌파에 속한 자로서 공관복음서를 전적으로 비신화화 시킴으로 불트만 신학의 기초를 낳았다. 그는 저서 *예수전을 출판하여* 19세기의 신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는 '예수의 일생은 다른 역사적 인물과 같이 인간의 자리에서만 보아야 한다. 그의 이적은 신화이다. 신약의 초인적 특색들은 다 신화의 조작(Creation of myth)이다.'⁶⁵⁾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떠난 유물론과 염세주의적 종이 되고 말았다. 리츨(Ritschl)과 하르낙(Harnack)은 신칸트적 철학가치과 루터적 복음축소주의에 입각하여 기독교의 초월적 교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죄의 용서

64) 김수학, *세계교회사* (대구: 보문출판사, 1997), 454.

65) Ibid., 456.

와 도덕적 갱신, 나아가서 이 지상 위에 도덕적 왕국건설을 주장하였다. 리츨은 칸트로부터 이끌어낸 도덕을 종교의 자리로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점증적으로 중요시 여겨졌다. 리츨은 기독교의 도덕성을 그 당시 유행하던 도덕과 너무나도 일치시킴으로써 그의 이상적인 기독교의 삶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민족적인 자유주의의 독일 부르조아적 인간”이라고 말하게 되었다.⁶⁶⁾ 하르낙의 경우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신학적 진리들 보다 예수님 자신의 복음이 원복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며 복음과 성령의 역동적 역사, 죄의 심판, 종말적 비전 등은 이들 리츨과 하르낙에서 발견될 수 없다.

19세기는 유럽의 세속화시대요 자유화시대요 인간의 가능성과 역사와 사회의 낙관적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탈기독교 영성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에 초석을 깔고 세속적인 보편가치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였다. 따라서 학문과 신학, 문화적 가치와 신학, 일반종교와 신학, 일반역사와 구속역사, 사회와 교회가 야합하는 탈기독교 영성을 남김없이 노출시킨 시대가 바로 19세기 독일의 기독교였다.

제 5 절 현대교회 영성

현대교회의 영성은 19세기 선교적 영성을 이어받은 교회확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 후 독일 경건주의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및 2차에 걸친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세계선교운동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이라는 상이한 두 형태의 영성이 형성되었고 가톨릭은 예수회를 중심으로 세계선교를 진행하면서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그 지역의 정치적 특성과 제2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정의와 실천적 영성이 연합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해방신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영성을 형성하였다.

66)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 Ⅲ,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489.

1. 일치와 통합의 영성

먼저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영성과 복음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교회 선교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교파간의 충돌이 일어나자 선교활동의 협력을 위해서 생겨났다. 효율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선교협력을 위해서 국제선교협의회(IMC)가 구성되었고, 선교의 일치를 위하여 교회와 교단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신앙과 직제위원회(FOC)가 생겨났다. 또 교회 일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 곧 세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구성되었다.

일치를 추구하는 이런 세계교회 운동의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영성이 발전하게 되었다. WCC는 초교파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각 교회의 연합은 동시에 연합 이상의 어떠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의 특징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 특징이란 순수한 복음 선포, 순수한 성례의 집행, 교회권징의 실시, 그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을 포괄적이라고 보아야 마땅한 반면에 그 신앙은 보편적이고 그 체제는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⁶⁷⁾ 세계교회협의회는 일치를 위한 영성은 교회일치의 영성 뿐 아니라 세계일치의 영성으로 그리고 피조물과의 일치의 영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계일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교파를 향해서도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혼자만 교회 안에서 내면적으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교회활동의 차원에서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 기인된 것이다.⁶⁸⁾

복음주의 영성은 에큐메니칼 영성의 외향적 운동과는 달리 개인구원과 성결이라는 내향적 운동을 펼쳤다. 복음전도를 통한 회심에 주력하여 회심한 자에게 개인적 경건훈련을 실시하여 영적성숙을 가져오도록 꾀한다. 한마디로 회심 강조적 영성이다.

이처럼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가지 운동은 결국 선교의 양극화를 낳게 되었고 양 진영에서는 서로 적대시하여 자신들의 신앙고백과 운동만이 기독교적이요 옳은

67) L. Praamsma, *20세기 교회*, 박종철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의회, 1986), 232.

68) Donal Dorr, *영성과 정의*, 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0), 16.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화해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W.C.C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으나 복음주의 쪽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3년 시카고에서 작성된 복음주의 계통의 선언문에는 복음주의 영성이 그동안 역사와 사회참여에 소홀히 하여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통합적 영성의 모습이며 현대 영성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카리스마 영성

기독교 영성 발달에 중요한 순간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은사주의 운동인데, 이 운동은 논쟁에만 매달려 있던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운동은 아메리카대륙 전체에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급속도로 성장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신앙의 재현으로서 의식적으로 세워진 것이 오순절파이다. 오순절주의 영성은 영적이고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증거로서 기도, 금식, 전도를 강조하며 성령의 은사가 열매인 것을 생각한다. 카리스마 영성은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바 성령의 은사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성의 잣대는 치유와 은사(방언, 꿈, 환상, 예언)이다. 또한 과대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다. 카리스마 영성은 사회적인 변화나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다보면 뜨거운 열정과 은사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장보다는 카리스마적 경험을 앞세워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전 12:3).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 2:43-47, 4:32-35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은 계시의 증명보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과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곳에 성도의 활발한 교제가 있었다. 성령의 이적적 능력의 은사들이 없이는 교회가 서로 섬기는 일과 복음을 힘있게 증거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게 되며 하나

님을 극적으로 경험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⁶⁹⁾ 그러나 바른 영성은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은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올바른 영성이다. 진정한 영성은 전 삶에 걸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3. 사회정의 영성

20세기는 기독교 영성의 혁명기라고 할 수 있다. 정의, 군사혁명, 사회변동이 그러했으며 신학도 '세속신학', '탈종교적 신학', '혁명신학', '해방신학'이 나타난다. 이러한 혁명적인 운동이나 사상들이 지향하는 것은 땅의 것, 보이는 것, 투쟁, 분열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땅의 것보다는 초월적인 것, 전쟁보다는 사랑, 분열보다는 일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 반문화운동 혹은 젊은이 문화운동이었던 것이다.⁷⁰⁾ 이 반문화운동은 초월주의를 중심으로 프리섹스, 알코올중독 및 광란의 노래, 춤을 곁하여 구미 청년들을 휩쓸기 시작했다.

이에 반하여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인 억압구조 속에서 나타난 신학이론이 '해방신학'이다. 구티에레즈(G. Gutierrez)는 역사의 전 과정을 해방의 과정으로서 하나님나라가 도래할 때 종국적으로 실현될 미래를 향한 운동으로서 묘사한다.⁷¹⁾ 그들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신학의 과제로 삼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하에 억눌린 자들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나오는 정치적 해방을 진정한 구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신학이론에 기초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정의 영성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변혁해야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야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심령의 변화이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게는 사랑의 실천 같

69) 나용화, *영성과 경건*, 101.

70) Kenneth Leech, *Soul Friend: The Practice of Christian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105.

71) Praamsma, *20세기 교회*, 276.

은 열매는 필수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에 앞서 각 개인이 성령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영성의 열매이지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 영성은 복음과 성경의 본질을 떠난 사회정의나 정치참여 강조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훼손시켜서도 안 되며 개인적 영혼구원에 집착하려는 은사 위주의 형태를 취하는 영성의 양극화가 나타나서도 안 된다. 진정한 영성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깊은 교제와 사랑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실천하는 균형 잡힌 영성이다.

제 4 장

한국교회 영성생활의 실제

미래적 전망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은 분명히 영성이다. 교회는 사회에 건전한 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성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영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에 영성을 제공할 능력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영성의 쇠퇴가 현저하다.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얻게 된 증세풍의 형식과 거품과 깨기 힘든 두꺼운 껍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진리에서 떠나버린 모습으로부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방법은 영성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 영성의 회복은 성경의 본래의 모습, 교회의 본래적 사명으로 돌아가려던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운동으로 다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역사와 전통문화 속에서 점검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성운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회의 영성

최근 들어 한국교회 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온 한국교회 역사 속에 정치, 사회, 교육 부문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은 실로 타종교의 그것에 비할 바 없이 활발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기독교의 성장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더불어 양적성장에 몰두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야할 교회마저 그 흐름에 몰두함으로써 한국사회나 교회에 불이익을 가져왔

다.⁷²⁾

더욱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교회가 복음의 진리보다 세속적 가치관에 붙잡혀 양적 성장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영성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한국교회의 영적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영성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영성훈련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기관들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영성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성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양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경건을 강조하는 영성운동은 사회적 해방의 차원을 세속주의로 간주하고 사회적 해방을 강조하는 영성은 개인적 경건을 신비주의나 도피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적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봉사나 섬김은 영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문제와 탈기독교화 되어진 영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1.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이해

19세기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하는 신앙의 형태는 한마디로 말하여 '경건주의'였다. 이것은 영국과 독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격에서의 주관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교회는 그 신앙의 원형이 '소박한 신앙', '인격적 경건의 신앙'이니 해서 그 특징을 개인의 영혼구원에 두었다고 세계교회는 보아왔다.⁷³⁾

개화기의 신앙형성을 살펴보면 구한말 때 개신교를 믿는 사람 중에는 천민, 중인, 양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 자체에서 그 때의 신앙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신분계급사회의 극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또 민주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활력소로 보고 입교했다. 이들은 민족과 민족은 동등하며 또 각 민족의 구성원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믿었다.

일제식민지 치하의 신앙형태는 경건주의적 신앙형태는 유지되었지만 민족주의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일본에 병탄당하는 시기인 1905-1910년 사

72)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118.

73) 민경배, *한국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26.

이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동안 선교사들 중에는 이를 한국민족의 운명과 일제의 한국 강점과의 관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이 운동에 관심이 쏠리게 됨으로서 한일합병이 진행되어가는 동안 국내평화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은 민족적 울분을 종교적으로 카타르시스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⁷⁴⁾

3·1운동의 좌절을 겪으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이 때 활약하는 이가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이다. 길선주 목사 등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계시록 등을 통해 집회를 인도했으며 길선주 목사는 3·1운동 때의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앙을 내세주의적, 타계주의적, 비현실적인 미래상으로 신앙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나타난 부흥주의 영성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 기독교 영성이 현실에 바탕을 둔 영적 삶이 아니라 지나친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양태는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사참배로 인한 분열과 갈등, 적대시의 문제였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많은 신자들이 '개신교 왕국'에 사는 것 같은 착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갖는 예언자적 능력을 상실하고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독재라는 기형적인 집단이 탄생되었다.

1970년대 초 산업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선교, 빈민선교 등으로 하나님의 역사 참여, 현실세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신앙을 미래화, 타계화시키고 초월적, 초자연적인 것만을 강조하여 사회문제, 역사문제, 삶의 문제와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두 갈래의 극단적인 태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NCC 6개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문제, 사회정의 문제를 강조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내세성을 오히려 강조한다. 이에 비해 소위 정교분리를 내세우며 현실세계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금지하고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집단은 후

74)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7), 83.

자의 초월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의 정치, 경제적 불의와 부패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이 두 줄기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적이어야 한다.⁷⁵⁾

2. 한국교회 영성의 배경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삶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씨앗이라면 한국 사람의 종교적 심성을 포함한 문화풍토가 받아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성으로서 눈에 두드러진 것은 부흥주의 영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생활의 요청은 기독교 영성의 균형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표출된 영성은 한국종교문화 풍토 속에서 사이비 종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국종교풍토에 접목된 기독교 영성은 두 갈래의 서방교회의 영성이었다. 그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이다. 먼저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이쪽 사정에 대한 판단미숙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났다. 가톨릭교회의 영성은 본래 성례전적이고 예전적인데 이것은 이 땅의 민속적인 '제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⁷⁶⁾ 중국대륙을 거쳐 오면서 유교적 옷을 입은 천주교는 종교라기보다 '예전'의 형태로 신앙생활이 한정되어 있어 사회 상반 계급의 타파에 다소 민중의 여망을 어필했을지는 모르나 3·1운동에서 아무 기여도 못한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적 영성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⁷⁷⁾

한국 개신교의 영성 접목은 천주교와 다르다. 개화의 분위기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100년 전의 천주교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교초기부터 민족적 여망과 관련이 있어서 공신력과 같은 것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공신력이야말로 서구에서 들어온 개신교의 영성과 우리 민족의 독특한 종교적 영성 사이의 맥을 이어준 요소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에 접목된 개신교의 영성은 순수한 종교개혁자의 개혁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영성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다소 굴절된 영성의 강조점을 지닌 것들이었다. 크게는 부흥운동의 영성이었고 거기에다 청교도의 사상과 근

75)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86.

76) 박근원, "한국기독교 영성의 뿌리," *기독교사상*, 1987년 7월호, 25.

77) 박근원, "제 3세계의 교회와 영성," 27-28.

본주의의 색채도 짙게 가미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강조된 그리스도의 영성 접목이었다.⁷⁸⁾ 회개를 강조했고 하나님 사랑에 못지않게 이웃사랑의 가치를 들고 나왔다. 조선 조 말기의 망국의 한을 그리스도교의 참회운동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웃사랑의 정신이 병원과 학교, 나아가서 농촌계몽운동으로까지 불이 불기에 이르렀다. 감성적이고 내면적이며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변질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한국 개신교의 영성이 굴절이 생긴 것은 문자주의적 율법신앙과 상황적 교권주의에서 빚어낸 교회분열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였다. 일제 하에 신사참배에 앞장서는 등 신앙적, 민족적 지조를 팔았던 자들이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회개를 주장하던 이들이 변질세력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었다.⁷⁹⁾ 교회 정화운동의 실패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는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내제된 영성이 가리어져 버렸다. 이것은 곧 개인주의화와 내세 지향적이고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된 모습만 표출되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교회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반부터는 그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성경연구를 통한 질적 성장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숙한 평신도들의 영적욕구는 상승되었고 기독교인의 깊이 있는 영적 삶을 위해서 영성훈련은 불가피하게 요청되어졌다. 이러한 영적 욕구에 편승하여 한국교회는 탈기독교영성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량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 잘못된 종말론 등이 일어나 진정한 영성이 왜곡되어져 왔다.

제 2 절 한국교회의 성령의 이해

1. 성령이해의 문제점

20세기 들면서 기독교에 밀어닥친 가장 큰 충격파는 아마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찰스 파렘(Charles F. Parham)이 1900년에 벨렐 성경학

78) 박근원, "제3세계의 교회와 영성," 29.

79)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114.

교의 문을 열면서 소위 방언파라는 이름으로 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이미 국제적인 대교단으로 급성장하였고 그 증가추세는 아직도 둔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령운동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성령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바른 이해 없이 기독교 신앙에 무속신앙의 요소를 혼합시켜 영성을 흐려놓았으며 성경말씀보다 체험을 우위에 두는 감정적인 신앙풍조를 조장시켜 놓았다. 현실주의에 뿌리를 둔 기복신앙이 전통적인 경건주의를 크게 오염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⁸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보다 영, 성령이란 말로 영성을 이해시킨다. 곧 성령이해는 영성이해의 척도가 된다.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며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과 지배 아래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른 이해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 기성교회 신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너무 개인의 성령체험에 의존하므로 감정적인 주관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있다고 비난하고 반면에 오순절주의자들은 기성교회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교리와 신학만을 붙잡고 있는 껍데기 신자들이라고 빈정대곤 한다.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많은 오해 중 하나는 경험론적 이원론이다. 곧 오순절교회에 와서 성령세례를 체험한 이후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데 이런 극적인 삶의 전환점은 성령세례와 연결되어 있다. 보통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들이 동반되므로 그런 은사를 소유함으로 자신이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 2의 축복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단순히 구원만 받아서는 신자의 역할을 못하므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⁸¹⁾

물론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성령세례란 말을 사용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처음 증생(구원)과 성령세례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주어지는 제2의 경험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순절주의자들처럼 만일 구원경험과 성령세례를 다른 경험으로 구분한다면 경험론적 이원론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성령세례가 제 2의 축복이라면 요한이나 베드로사도 사도 바

80) 옥한흠 외, *현대교회와 성령운동* (서울: 엠마오, 1987), 10.

81) 조용기, *5중 복음과 삼박자 축복* (서울: 영산출판사, 1983), 114.

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구원받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야 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생이후에 존재하는 제 2의 성령경험이 있다는 시사가 없다.

그것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충만의 경험일 것이다(엡 5:18). 그러나 그것은 제 2의 축복이 아니고 신자의 회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생활에서도 계속 경험되어야 할 것이다.⁸²⁾ 그러나 성령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의 성취로 생각하여 스스로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게 된다.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을 경험한다든지 성령세례를 경험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개인의 성취로 간주하여 자랑이나 자기 과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였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연합을 강조하고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한 몸, 한 형제와 자매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다.

한국교회에 또 다른 혼란을 주는 것은 ‘은사문제’와 관련이 있다. 성령은사를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개인의 특기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랑의 수단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신령한 것”은 ‘프뉴마 티콘’으로 영적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 또 영적 은사들이란(고전 9:11; 14:1)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에서 ‘카리스마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은사를 받은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적은사들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의 은사란 용어는 좁은 의미로 공적예배에서의 은사사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영적은사들은 회중예배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적은사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게 하신 것이다.⁸³⁾ 은사는

82) 이한수, *그리스도와 성령*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158.

83)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 갱신과 성령*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5), 126.

개인의 신앙능력이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다 신령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징표도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성의 표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신자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가에 논증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상의 종의 형상과 분리시킬 수 없다. 곧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와 권위는 피상적으로 인상적인 은사를 소유하는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위와 지혜는 어떤 외적인 권위나 비범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자신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기자들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자를 후자에 귀속시킨다. 성령은 '주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을 거룩하신 인격자로 안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실까?"를 궁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령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더라도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임을 알기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⁸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기도의 연습과 말씀묵상훈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2. 영성운동과 성령운동의 차이점

영성운동과 성령운동은 목적은 같으나 출발점이 다르다. 영성운동은 자기 지각,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성령운동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말한다.⁸⁵⁾

영성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깊이 느낌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순수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⁸⁶⁾ 즉 개인의 경건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

84) 홍성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0), 13.

85) Ibid., 6.

86) 나용화, *영성과 경건*, 25.

터 갖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성숙의 과정인 것이다.⁸⁷⁾ 영성에는 내적훈련과 외적훈련 그리고 단체훈련이 있다. 내적훈련에는 말씀묵상, 기도, 금식, 학습의 훈련이 있다. 외적훈련에는 단순한 삶의 훈련, 독처 훈련, 종의 훈련, 봉사의 훈련 등이 있다. 단체훈련은 죄 고백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등이 있다. 이런 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된다.⁸⁸⁾

성령운동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아주 눈에 띄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⁸⁹⁾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을 내적 사역이라 하고, 눈에 띄는 사역을 외적 사역이라 한다. 내적사역에는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 둘째 거듭나게 하심, 셋째 열매 맺게 하며 성장하고 변화를 주게 하심, 넷째 교제를 이루게 하심이 포함된다. 외적사역은 첫째 능력을 받아 권능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 둘째 은사를 주심 등이 있다.

성령운동은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가져다주었고, 목회상으로는 기성교회가 크게 각성할 수 있는 자극제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교회 성도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⁹⁰⁾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바른 관점이나 이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바른 영성 개념 정립에도 장애를 역할을 하고 있다. 참된 성령운동과 영성 개념은 삼위일체 신론에 합당하게 연관되어 정립되어 한다. 흔히 성령론이나 영성 개념을 논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의식적으로 배제시킨 상태에서 소위 성령 제일주의 신앙으로 빠지기 쉽다.

87) 양창삼, *당신 안에 있는 영성을 깨워라* (서울: 나침반, 2003), 6.

88)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23.

89) 옥한흠 외, *현대교회와 성령운동*, 19.

90) Ibid., 3.

또한 경험론적 이원론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오순절 교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해로서 예수를 믿고 증생한 신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축복, 즉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국교회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혼란은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는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성령의 은사를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층 더 위험한 것은 은사 경험이 변화된 삶의 윤리적 차원과 분리되어 일방적으로 추구되는 현상이다. 은사와 윤리는 성령의 중요한 사역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은사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내면적이고 은밀한 사역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은사들을 일방적으로 치켜세우고 추구하려는 경향⁹¹⁾이 현저하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나 은사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재현하고자 하시는 십자가 형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령 이해나 그것에 기초한 영성 개념이 진리의 균형성을 잃어버리고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왜곡된 성령운동이나 영성 개념들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균형성을 회복해야 한다. 삼위일체 신론에 기초한 영적 균형성, 회심 경험에 기초한 영적 균형성, 바른 신앙과 바른 실천 사이의 영적 균형성, 은사와 윤리 사이의 영적 균형성,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사이의 영적 균형을 이루어 총체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제 3 절 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영성

한국교회 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인의 영성적 삶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씨앗이라면 한국 사람의 종교적 심성을 포함한 문화 풍토가 받아 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이 땅의 전통종교와 문화 속에 접합되어서 영성의 흐름을 주도하고 종교적인 맥을 이어왔다. 인간의 심성은 민족이 살아온 자연환경,

91) 이한수, *그리스도인과 성령*, 281.

기후풍토, 역사, 환경과 고난에 찬 생존조건에 적응해 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심성을 형성하게 되었다.⁹²⁾ 모든 인간은 특이한 종교적 색깔을 띠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영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적 심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민족의 종교적 영성은 한국의 무속신앙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민족의 한의 사제노릇을 해온 무속신앙의 제사장적 영성과 하늘 아래 인간사의 대의를 추구해 온 예언자적 영성의 역학적 조화가 한국 민족의 종교적 심연에 깔려 있는 영성의 뿌리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기독교의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를 떠날 수가 없다. 한국 기독교의 영성은 전통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정체성이 다소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문화를 무조건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배척하는 배타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숭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재발견하여 발전하고 계승시켜 나간다면 한국 교회 영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전통 문화 속에 나타난 기독교 영성을 어떻게 전환하고 갱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샤머니즘적 영성

한국전통 종교의 이해는 샤머니즘의 이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은 한국고유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적 외래 종교들인 불교, 도교, 유교, 특히 신유교는 이 무속종교의 의식과 토양에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샤머니즘과 이들 종교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 샤머니즘은 어느 종교든지 수용하여 혼합주의를 형성하였다. 샤머니즘은 한때 동북아시아 변경지대의 만주, 퉁구스족의 유사 신앙행위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계에서는 샤머니즘이 인류가 초창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한 종교라는 것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이야말로 단지 한국적인 전통종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고대인이 체험한 종교라는 것이다.⁹⁴⁾ 이런 의미에서 한국무속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

92)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18.

93)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성경과 신학* 7 (1992): 394.

94)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trans. W. R. T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25.

한국의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생활과 이에서 형성되는 성격을 만들었다.⁹⁵⁾ 샤머니즘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다.⁹⁶⁾ 현재나 미래에 닥쳐올 재앙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현세에 복을 받아 누리려는 신앙이다.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은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그래서 설교나 기도 등에서 목회자가 현세적인 축복만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헌금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샤머니즘의 가치의 기준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며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이 개념이 한국교회 풍토 속에 나타나 많은 교역자와 교회들이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은혜로운 교회이며 이러한 가치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형교회를 꿈꾸며 교세확장에 열을 올린다. 질적인 성숙이 배제되고 성장만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은 샤머니즘의 기복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영성이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채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이며 세속적인 영성이다.

둘째, 신비주의적인 영성이다. 샤머니즘에 나타나는 주술이나 신내림 그리고 엑스타시나 열광적인 노래와 춤을 통해 기적이나 귀신을 쫓는 신비적인 신앙은 한국교회의 부흥집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무당이 될 때나 굿을 함으로 신탁을 할 때 영계와 교통하며 몰아입신의 삼매경으로 들어가서 탈아 상태와 신인합일의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주의 속에 나타나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은혜받은 것이며 감각적인 느낌을 가져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입신, 환상, 방언, 기적 등 신비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비복음적인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샤머니즘의 종교적 영성과 깊은 관계성이 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이 없는 현실에 집착하는 신비주의적인 영성은 인격과 삶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셋째, 개인주의 영성이다. 천지신명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무속적인 신앙은 인간과 초월적 신과의 관계가 삶의 성화 없는 오로지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한 곳으로 신령을 즐겁게 해주는 데만 주력한다. 샤머니즘의 신관에 의하면 선신은 사람

95)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39.

96) Ibid., 34-35.

에게 복을 주고 악신은 재앙을 준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선신과 악신의 구별이 윤리적 정의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기에 선과 악은 윤리적 규범이 되지 못하고 윤리적 필연성이 결핍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변질되고 왜곡된다. 여기서 무속은 종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인 윤리와 양심과 성화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⁹⁷⁾ 내세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사상이나 생활태도를 바꿀 필요도 없고 ‘굿’이 끝나면 자신에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다.

한국교회 영성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무속적인 배경의 신앙생활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개인의 욕심과 욕망, 소원성취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신(神)을 기쁘게 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기복적인 신앙은 샤머니즘의 영성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물론 기독교에는 복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현세적인 축복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성경의 복은 구약에서와 같이 율법의 준수와 함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팔복의 개념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며(약 1:12),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이고(계 1:3),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행 20:35). 성경에 대한 이러한 복의 이해를 통해서 샤머니즘적인 복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 영성이 아니라 건전한 영성운동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총체적 영성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영성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영성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참된 영성의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97) 유동식, “민족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79): 107.

2. 불교적 영성

불교에서는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불교는 신으로서 불타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각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양과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요구한다. 불교에서 인간의 삶이란 괴로운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들은 저마다 주어진 마당에 '고해라는 연극'에서 한정된 기간인 '한평생' 동안에 괴로움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을 멋지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⁹⁸⁾ 불교의 도피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시각의 요소는 다 비애이고 고통의 매개이므로 거기서 벗어나서 비존재 상태인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불교의 사상이 한국교회 영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은 자아를 죽이고 비워서 비존재가 되는데 있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의 생의 가치나 의미를 두둔하지 않고 타계를 사모하는 정신적 신앙을 고취한다. 기독교의 지나친 타계주의는 그리스도적이라기보다는 불교적 색채가 짙다.

불교의 재래의 경건인 내세주의적 금욕주의는 그리스도교의 선교의 임박한 종말론적 메시지와 우연한 일치로 조화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회복되었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른바 실현된 또는 출범한 종말론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나라의 선포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이미 출범했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벌써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이고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된 구원을 누릴 것이다.⁹⁹⁾ 종말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불교의 현세부정과 질적으로 다르다. 기독교는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에 도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딤후 4:7).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씨름에 비유했고(엡 6:12),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의 현실부정적인 태도는 도피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영향을 받아 현실에 도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내세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이것은 불교적 영성의 영향이다.

98) 서재성,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2), 25.

99)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117.

그 결과 기도원운동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도원운동이 한국교회의 영적부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 영적으로 잠자던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해 주었으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게 되었다. 그러나 기도원운동이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한국교회를 은사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빠지게 만들었고 기복적이며 정적인 신앙, 도피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여 수도생활만을 고집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사명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3. 유교적 영성

유교의 종교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우선 공자에게 있어서 천(天)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사명을 제시해주는 초월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공자 자신이 항상 주대문화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소명을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은 자신의 생활을 언제나 예에 맞게 잡아주는 규범으로써 윤리적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¹⁰⁰⁾

유교의 종교성의 특징은 제사문화이다. 제사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존재근원에 대한 확신, 모색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에게나 보편으로 깔려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종교가 생겨났다. 그러나 유교의 영생법은 상대적이며 간접적이다. 즉 죽은 뒤에 자기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남아 자신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았다.¹⁰¹⁾ 제사를 드리는 자손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죽어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제사지내면서 나를 기억해주겠지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유교적 제례의식은 또 다른 형식주의를 낳았다. 한국인의 신앙생활 형성에 있어서 유교적 형식과 체면은 외형주의를 낳았다.

이러한 유교의 외형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부실을 은

100)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2), 403.

101) Ibid., 403.

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팔고, 성직을 파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에서는 중직을 가졌으나 직장에서는 그 직분과 전혀 관계없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허다하다.¹⁰²⁾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은 거룩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원론적인 신앙구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겉치레와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을 다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장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유동식은 유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분석하면서 결정적 악영향의 근거로 분파당쟁을 들고 있다.¹⁰³⁾ 유교의 이기적 가족주의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크게 작용하여 파벌을 조성하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협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단의 분열과 개교회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유교 이기적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기독교에 파고 들어와 파벌을 조성하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파가 생기게 되었다. 또 그 분파의식과 경쟁 때문에 교회의 신앙과 본래적인 이미지를 흐리고 있어 이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유교적인 영향 하에 인본주의적인 영성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을 본래 선한 것으로 보아 윤리적인 자기완성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무종교상태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어야 하는데 인격적 신을 믿지 않는 유교의 사상이 기독교에 미친 결과이다. 그 결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주의에 얽매이게 되었다. 삶을 떠난 영성은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었다.

유교의 지나친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상은 한국교회에 들어와 물량주의, 세속주의를 낳게 되었고 대형교회주의나 외형적 업적의 과시에 치우치는 경향을 부추기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기독교는 동일한 본질을 소유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믿는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를 성부교나 성령교라고 부르지 않고 성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102) 김원식, *한국 크리스찬의 현주소* (서울: 성광문화사, 1979), 75.

103)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92.

104) Ibid., 45.

그리스도 중심을 통해서만 올바른 하나님 이해와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전인격적 변화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제 4 절 한국교회의 탈기독교 영성

오늘의 한국교회 영성이해는 영성의 종교성 또는 영성의 신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영성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인 성격을 간과함으로써 탈기독교적 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 속에 나타난 영성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영성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이원론적 영성

이원론은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워치만 니(Watchman Nee)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과 서양철학의 유입으로 인해서 대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종교개혁기간을 빼고는 기독교는 정치, 사회, 예술 등에서 이원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원론은 이 세상을 물질계와 정신계로 양분한다. 물질계에는 인간의 육체, 감각, 이성이 속하며 이것들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림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정신계에는 영혼, 혹은 정신이 속하며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원형이며 이데아라고 생각한다. 영성과 관련하여 이원론은 부정적 영성과 불완전한 신비주의를 낳았다.¹⁰⁵⁾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성신학’이라는 말자체가 생소할 뿐 아니라 ‘영성’이라는 말과 ‘신학’이라는 말을 합성하는데 회의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학문이고 지적인 훈련인데 비해 영성이라는 말은 삶의 깊이를 다루는, 그래서 감정이나 의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용어로 대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학과 영성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신학자들이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다. 한국교회의 영성기반은 총체적 영성이해가 아니라 이분화 또는 이원화된 영성이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영성이해의 반작용으로 한국교회 진보주의 그룹에서는 역시

105) 성인경, *대답은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40.

균형을 잃은 사회주의적 영성, 역사적인 영성만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 보수주의의 영성이해를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영성이해는 영성신학, 영성운동과 단절되었다. 경건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로 맥을 이어오는 개신교의 영성전통에서 영성의 개연성, 신비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개인적 영성, 신비주의적 영성, 은사주의적 영성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에 바탕을 두어 성경중심, 신앙중심의 대중을 일깨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유형에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교회지상주의로 발전하였다.¹⁰⁶⁾ 영성적인 삶은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영성이해에 종교성만을 강조하게 되었고 진보주의 교단에서는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사회적 삶의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영성의 사회성, 역사성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개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고 사회를 위해서는 도덕적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여되면 그 종교는 절름발이 종교요 따라서 얼마 못가서 도태된다. 개인에게 구원을 확신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얼마가지 못해서 힘을 잃을 것이요, 개인의 구원만 약속하고 윤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종교는 영적인 힘은 행사하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사회로부터 밀려나 버린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진보적 기독교회는 전자의 약점을 그리고 보수주의 교회는 후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이원론적 영성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영성에 집착하게 된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중심의 신앙으로 한정된다. 기도의 내용, 예배의 동기와 목적 등이 사적으로 굳어져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과 축복에 일반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그 분을 향한 신앙을 나타내는 기도생활을 강조하게 된다.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가정문제해결, 질병치유, 사업의 성공, 성령의 은사 등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개교회가 자기의 역량을 오로지 자기 교회에만 한정시키는 행위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적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06) 신성종 외,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혁시킨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281.

107)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9), 141.

2. 신비주의 영성

한국교회의 탈기독교영성 가운데 하나가 신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계속해서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 은사주의, 기복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영성이해란 초월자와의 직접계시와 접촉의 강조와 체험이 그 핵심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신비주의 전통이 있었다. 또한 이런 영성의 신비적 이해가 기독교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였고, 기독교인의 삶을 능력 있게 영위할 수 있게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초월적이고 직접적인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무속적인 것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비경험이나 여기서 얻는 기쁨, 쾌락자체가 신앙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과정이 되는 신비주의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 영성운동이다. 영성회복을 위해서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흥회는 교회의 영적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첩경이기도 하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각종 부흥회를 통해서 성장의 기틀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부흥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회개와 영적도전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자들도 속출했다. 하지만 부흥회 영성이 영성회복의 전부는 아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영성의 모든 것이 아니다. 부흥회 영성은 유동적이며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영성은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영적인 각성이 아니다. 영성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신비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서의 신비적 경험은 영적 도피주의 늪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 특히 한국교회 속에 나타난 기도원 영성운동은 세계교회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영성이 있다는 것을 기도원에서 보낸 시간의 양에 따라서 영성에 능한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곤 한다.

영성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이다. 기도 없이 영성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가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는 언어이

다. 기도는 '연설'이 아니라 '응답'이다.¹⁰⁸⁾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신비주의 영성은 불건전한 기도원운동을 통해서 전수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신비주의는 영적 황홀주의, 광신주의와 같은 현실을 떠난 탈기독교영성으로 왜곡되어 왔다. 영성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성의 신비성은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신비성이 잘못 흐를 때 문제이지 정서 속에 있는 신비성 자체를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3. 성장주의 영성

한국교회는 선교 1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성장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교회는 날로 비대해져 가는데 농촌교회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가 교회를 종래보다 더욱 기동성 있게 만들어주고 인구의 이동과 도시집중현상으로 도시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케 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탈기독교 영성의 모습은 목회자들 뿐 아니라 교회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성장이라는 물량주의적 가치관에 붙잡혀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자유시장의 무한 경쟁구조로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자유시장의 경쟁구조는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 유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교단별로 보아도 세계 최고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경쟁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자유경쟁체제는 목회자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준다. 교인의 수로든 교회의 크기로든 자기 교회가 남의 교회에 뒤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날카로운 태도는 질적인 목회, 사역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목회자의 영성을 왜곡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영성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다. 이러

108) Eugene Peterson, *균형, 그 조용한 목회혁명*,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66.

한 성장위주적인 교회는 한 개인의 영성과 신앙의 성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세적 축복이나 기복을 더 강조할 뿐 아니라 탈기독교영성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요즘 유행처럼 성행하는 교회성장이나 부흥을 위한 각종 세미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학적 판단에 검증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전략 및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식이다. 이러한 일회성 프로그램은 결국 목회자들을 안일하고 나태하게 만들며 영적 탈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목회자는 경쟁의식 속에 빠져서 경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내면의 공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교제가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 메이커, 혹은 매니지먼트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된 영성은 그 결과가 미진할 때 곧바로 식어버린다. 세미나 영성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아도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성장 프로그램에 기웃거리게 된다.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 접근을 외면한 세미나는 갈증만 일으킬 뿐이다. 영성은 성장프로그램으로써 형성되지 않는다. 영성은 철저한 순종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¹⁰⁹⁾

영성의 삶은 매순간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총체적 영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탈기독교 영성을 거부하고 언제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

109) 송삼용, *영성의 저장들*, 520.

제 5 장

총체적 기독교영성의 프로젝트

21세기 현대사회의 종교적인 화두는 영성이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헨리 나우웬(Henri J. Nouwen)이나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성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학교육에서도 영성신학이 등장하고 신학도들의 영성형성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관심은 유익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영성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 없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한 운동들이 영성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그릇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영성에 지배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영성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기독교영성은 의식적이거나 반지성적인 영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성은 체험의 본질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삶 속에 나타난 총체적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경건과 능력에 대한 실천적 조명과 균형잡힌 영성운동,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영성운동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영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영성의 실천적 조명

참된 영적인 삶은 변화이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엣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눈 앞 것만을 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이것은 영적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반영된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그러나

‘경건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져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한된 의미나 비성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경건과 능력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파악하고 영적인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1. 경건에 대한 이해

오성춘은 그의 저서 *영성과 묵회*에서 기독교적 영성의 삼요소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초월적 경험과 영적각성 그리고 역사현장의 참여를 꼽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시어 우리와 맺으시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초월적 실재이시기 때문에 그 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초월을 경험케 한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더러운 죄악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바꾼다. 셋째로는 성육신하신 역사적 예수님의 삶에 참여한다.¹¹⁰⁾ 즉 자기를 버리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웃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산다. 이것이 영성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성이란 말 역시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란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형태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해온 인간의 신앙심으로 이해되어왔다. 대체로 영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성찬, 그리고 묵상과 영적사교 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삶을 표현해주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¹¹¹⁾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경건이나 영성이라는 말은 기도나 성경읽기와 같은 몇몇 특정한 신앙행위와 관련된 상당히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루 일과 중 일정한 시간을 내어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나 주일 낮, 수요저녁과 같은 공적 예배시간 외에 신자들을 따로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훈련 하는 모임을 영성훈련이라고 이름붙인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εὐσεβεια)라고 하는데 이것은

110) 오성춘, *영성묵회*, 88.

111) 송삼용, *영성의 저장들*, 17.

부사 εὖ와 동사 σεβώε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부사 '유'의 뜻은 영어 'Well'과 같다. 즉 우리말로 '잘'이란 의미이다. 동사 '세보'는 '공경한다', '위한다', '섬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건이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됨이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건'이란 말은 예배당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칼빈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서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¹¹²⁾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사용되었다. 구약성경에 고라자손들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물로 바친 향로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실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민 16:38).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드러져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사실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거룩하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의 자녀가 되면 거룩한 성도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관계이다.¹¹³⁾

그러므로 경건의 본질은 삶의 양질로서 첫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겸손, 둘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항상 교정하고 개발하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깔고 닦고자 하는 심령의 이해와 감수성, 셋째 말씀에 입각한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적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적 영광의 찬미의 삶, 넷째 매사에 부지런한 영적능력의 활기이다. 경건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양질로서 기독교인의 생활자체에서 보이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¹¹⁴⁾

112) Calvin, *기독교강요 상*, 193.

113) 나용화, *영성과 경건*, 28.

그러므로 경건은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표현되어지며 내세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기부인은 자기망각이나 자기비하가 아니다. 또한 자기학대와 같은 방법으로 욕심을 꺾는 부정적의미의 자기부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 의미의 자기부정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행동의 변화이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삶을 산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던 자로 변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엿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눈앞의 것만을 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신앙은 언제나 변화를 수반한다. 이같은 변화를 이룬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자라고 부른다.

2. 능력에 대한 이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능력'이란 어휘사용은 헬라어 'δύναμις'인데 다른 것들 위에 지배, 영향력, 권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나 잠재적인 힘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힘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렘 10:6; 대상 29:11-12). 그리스도는 죽어야할 인간의 운명과 부패로부터 구원하셨고 현재에도 구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장래에도 구원하실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그 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죄인들을 경쟁하시고 증생하게 하셔서 성화시키는 진행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 안에 내주하시어 그 분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사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인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이 되는 기독교인의 양식 있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¹¹⁵⁾

114) 이완재, 영성신학탐구, 303.

115) Ibid., 327.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비적인 힘과 마술적인 힘으로 오해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분의 능력으로 그 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 소유로 하고자 했던 것과 같다(행 8:18-24). 총체적 영적 삶이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아니다. 그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적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다. 영적인 내용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체험했느냐, 감격했느냐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순종, 복종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이적과 기사를 매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압으로 겸손히 사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병을 치유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거나 방언 등을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 능력의 치유 역시 복음 선포 이 외에 하나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증언 중 하나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의 치유와 기적들은 하나님나라의 기적들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에 대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귀신들은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창조 안에 거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그의 영원한 생동성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나라의 희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 희망을 기억하게 된다. 모든 치료 가운데서 삶을 다시 얻으며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그 고난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병을 “짚어지심으로”(사 53:5)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병들어 있고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없으며 장애자가 된 인간의 삶을 받아드리고 그것을 자신의 영원한 삶의 일부로 삼았다.¹¹⁶⁾ 하나님은 병과 근심을 자기 고난과 자기 근심으로 삼음으로써 병과 근심을 치료하셨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

116) Jürgen Moltmann, *The Source of Life*, trans.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77), 64-65.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후 12:9)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겨낸 자신의 연약함과 학대와 고통과 불안을 자랑한다. 헨리 나우웬(Henri J. Nouwen)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상처받은 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었다고 말하면서 “상처가 곧 사명이다”라고 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능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다¹¹⁷⁾고 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행 3:1-4, 5:12-16, 8:4-13). 이러한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으며 그 백성들에게 복된 날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으니라”(마 12:28)고 말씀하셨다.

영적생활 속에서 ‘외적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첫째, 성령의 능력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우선시할 때 능력에 뒤따라오는 증거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리기 쉽다.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지 결코 목적이 아니었다. 둘째, 능력 자체는 스스로 자신의 진리성을 드러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으로부터 온 것인지 혼동할 수 있다. 표적과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셋째, 영적능력의 절실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그리스도의 주되심보다는 감정에 이끌리기 쉽다. 체험과 감정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친 주관주의나 신비주의는 영성을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초

117) 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117.

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고후 5:17; 엡 2:4-10; 요일 3:9). 이를 통해서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최고 표적과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완성하는 것으로 총만히 가득 찬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오신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주를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신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성 어거스틴은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얼굴만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¹¹⁸⁾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부인의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눅 9:23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자기부인은 자기비하, 자기학대, 자기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긍정을 위한 부정’이다. 즉 ‘참된 나’를 찾기 위해 ‘거짓된 나’¹¹⁹⁾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총체적 영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균형잡힌 영성운동

영성운동의 기초는 균형이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치우치게 된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성만 갖고서는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없다. 물론 오순절 계통처럼 성령강림이나 감성주의적인 것만을 강조해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적 책임감이다. 성령께 의존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어서 균형을 갖는 것을 말한다.¹²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균형에서 극치를 이루셨다. 비움과 채움,

118) A. W. Tozer, *경건생활의 기초*, 강귀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64.

119) 이동원,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 (서울: 두란노, 2004), 131.

120) 오정현, *잠들지 않는 사역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8.

텅빔과 충만, 버림과 취하심의 완전한 균형이었다. 균형잡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믿음과 행함, 말씀과 변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개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숙,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영성운동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믿음의 행함이 있는 영성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이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이신칭의'의 교리에만 너무 매달려 온 나머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행위만 동반한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을 던져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신칭의 교리에만 매달림으로 인해 행위없는 신앙생활이 만연됨으로써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성도들의 내면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신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 속에서는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영적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본질은 성경적 기초 위에 균형이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되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주된 이유는 순교자들의 피가 진정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들을 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차츰 그 순수성을 잃어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회의 화려한 예식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편승한 사제들은 겸손과 절제를 익히기보다 명예와 사치를 더 추구하게 되었다. 그들의 제복은 화려했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삶의 기초인 믿음의 삶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잘못된 성경이해와 목회자들의 설교사역의 문제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 칼빈은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을 그 말씀에서 얻는 것”¹²¹⁾이라고 했다. 믿음에 무조건이란 없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다. 맹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을 더 깊은 미몽 속으로 침몰케 하는데 반해 참된 믿음은 깊이를 더할수록 점점 더 명료해진다. 따라서 믿음과 맹신은 어떤 경우에서도 동일시될 수 없고 믿음에는 무조건이 있을 수 없다. 보지 못하고 믿기에 믿음이 시작되지만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인식의 근거가 믿음에 있음으로 비로소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¹²²⁾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중심에 둔 믿음의 경향이 있다.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구원받는 데만 있는 것과 같은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간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약 2:17)고 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행함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 매우 약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차원이지만 행함은 그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입증하는 것 곧 나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면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믿음과 행함, 곧 신앙과 행위는 하나이다. 영혼과 몸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그 열매와 같다. 따라서 믿음은 영적인 삶에 나타나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약 2:23) 이삭을 바치기 전이었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적 행위 곧 행함으로 입증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하신 말씀이 그대로 입증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와 일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12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중, 김종흡 외 4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24.

122) 이재철, *참으로 신실하게* (서울: 홍성사, 2002), 81.

다 있어야 한다.

믿음 없는 행함, 행함 없는 믿음 모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이다.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룰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 삶의 과정은 지속적인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격으로 변화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속에서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 속에서 영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신앙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균형잡힌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 자체와 신앙이 되도록,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2. 말씀으로 변화되는 영성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성장 하였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민족도 드물다. 선교초기에는 모든 교회가 사경회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이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은 그 삶의 능력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말씀을 외치면서도 말씀이 삶과 인격 속에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설교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에서는 설교강단에조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어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¹²³⁾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 그만큼 권위있고 가치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말보다 존

123) 정장복, 설교학서설 (서울: 엠마오, 1995), 76.

종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균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히 4:12).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이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상고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그 말씀을 실천할수록 균형잡힌 영성으로 세워져가게 된다.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기초 없이 세워졌기에 빨리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자기 이증성과 자기모순으로 틈이 벌어져 있는 간격을 메우는 것이다. 그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듣고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적용,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시편 1장 1-2절을 보면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했다. 복이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 동양종교에서의 묵상은 자기와의 분리이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묵상은 자신을 비움과 동시에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자이신 하나님과의 결합이다. 즉 하나님과의 일치, 자기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 결과 영적변화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영성이란 곧 말씀중심의 신앙을 말한다. 말씀중심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 결과 자기

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다. ‘자기부인’은 자기학대나 자기비하가 아니다. 이방종교에서 행하는 고행의 길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실천일 뿐이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삶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당들의 푸닥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무당이 와서 칼춤을 추며 온갖 난리를 부리지만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100퍼센트 나의 욕심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와 실천을 요구한다. 영성이 없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의 삶이다.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숭배의 신앙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일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없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나 성숙이 아니라 감정적 충동에 유혹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죄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일은 매일매일 거듭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애쓰며 사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 한방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로또복권 당첨 같은 영혼의 변화를 소원하는 것이다.¹²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균형잡힌 영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최고의 단계이다. 무디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책”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그리고

124) 김남준, *제으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66.

영적성숙을 위한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to like Christ)이다.¹²⁵⁾ 인간 내면의 변화와 확신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진 책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영적변화가 수반될 때 균형잡힌 영성으로 세워져가게 된다.

3. 기도로 관계가 회복되는 영성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한다. 기도는 영적인 생활의 기초가 되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순간 숨을 쉬어야 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숨을 쉴 수 없는 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즉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관계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각종 영성훈련을 통한 기도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생활을 창조하는 것이다. 윌리엄 케리(William Carry)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밑뿌리에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¹²⁶⁾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속에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의 기도가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마술적이고 신비한 힘을 얻는 것으로 오해되어져 왔다. 기도를 지나치게 율법화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헛된 공로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 왔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영적부작용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칼빈은 "모든 것

125) 손경구, *사명* (서울: 두란노, 2002), 101.

126)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61.

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¹²⁷⁾라고 했다. 테레사 수녀는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나누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과거의 삶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바로 살기로 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다.¹²⁸⁾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말씀하셨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대상에 관한 지식이 그 신앙을 하는 개인의 열심과 노력보다 언제나 앞서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다. 둘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를 바꾼다. 셋째,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처지에서 피하게 해주는 속임수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이를 정복하게 해주는 것이다¹²⁹⁾

환경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성화시키는 힘이 없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삶이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자신의 인격과 내면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 영적인 삶을

127) 감남준, *깊은 기도를 체험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46.

128) 양창삼, *영성회복의 신앙*, 168.

129) 임영수, *삶 그리고 성령* (서울: 홍성사, 1993), 29.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자신의 인격과 영성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균형잡힌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이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수준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며 따라서 영력 있는 기도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 즉시 좋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경신을 통해 영적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균형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과 기술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속에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영적교제요 관계에 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롬 8:15-16).

4. 제자로 성숙한 영성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수십 년간 양적성장에만 매달렸던 한국교회가 90년 이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 성격이나 유형이 한국경제성장의 근대화와 맞물려 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상의 윤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성장, 부흥의 의미를 양적 개념으로만 해석하여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을 비판 없이 받아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속적인 요소마저 도입하는 영적혼란을 자초해 왔다.¹³⁰⁾

물론 부흥과 성장은 양과 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질이 양을 결정하는 부흥이 건강한 부흥이라는 것이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1996년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월에 발표한 "한국교회 성장둔화에 관한 목회자 의식조사 결과"는 한국교회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할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 첫 번째인 황금만능적

13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24.

물질주의가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둘째가 '세속적 대중문화의 강력한 확산'이라고 하였다.¹³¹⁾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중심보다 인간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요구보다 인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메시지가 더 많은 환영을 받으므로 수많은 무리의 군중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기간 동안에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셨고 자신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막 3:14).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셨다(마 28:19-20).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사역에 남기신 것은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다. 물론 완전하게 예수를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미성숙으로 인한 한국교회는 영적 후유증을 얼마나 앓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미성숙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타자중심적인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다. 자라지 못한 아이일수록 자기 밖에 모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교학에서도 성숙한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타적인 교리와 타인을 위한 행함이 있는 종교이다. 기독교의 복음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욱 더 개교회화가 되어서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영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원인들은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영성훈련은 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해서 내면적인 영혼의 양육에 주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단순히 내면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왔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영적인 세계에 입문해서 초월자적인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

131) 이상화, *교회성숙분석리포트*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16-17.

아야 하지만 지금 내 발이 땅을 딛고 서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지향한다면 영적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잃지 않게 하며 동시에 땅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훈련되고 성숙된 제자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통전적¹³²⁾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영적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란 단지 인간의 마음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³³⁾

5. 공동체로 세워지는 영성

한국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치열한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고독과 소외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각종 종교적 생활의 공동체는 수없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목말라하고 있다. 진정한 공동체는 권력의 힘이나 재물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는 것이며 누구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들이다. 공동체적 영성은 영적인 강건함과 성숙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역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개인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란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그것은 초월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적극적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개인적 거룩함은 공동체적 거룩으로 나타나야 한다.

132) 통전성의 정확한 의미는 정직하고 견고한 성품, 말과 행동에 일치하며 신뢰할만한 성품, 그리고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성품을 의미한다.

133) 이상화, *교회성숙분석리포트*, 101.

공동체 영성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6-27절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우리’라는 복수대명사의 사용은 하나님 세분의 영원하고도 평등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본체시라는 신약의 신비를 뒷받침한다. 하나님이 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그 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은혜로 들어갈 때(렘 31:31-33; 눅 22:20)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요 17:22-26). 두 가지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모든 차원 즉 하나님, 우리 자신, 이웃들 그리고 창조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¹³⁴⁾

또한 공동체 영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말씀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요 17:20-23). 주석가들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교회 내부에서의 상호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우리의 영적체험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비슷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연합에 의존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공동체 영성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영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 신비들은 하나 됨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영적인 삶 속에 갈등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영적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기보다 상처의 아픔으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갈등구조를 낳게 되었다. 균형잡힌 영성은 홀로 고립된 삶을 살 때 유지될 수가 없다. 복음 안에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즉 공동체 영성은 그들이 속해있는 개인영성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균형잡힌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게 된다. 그 결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의 생명과 역동성을 성장시켜주고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새로운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행 2:37-47).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고 함께 거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

134)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468.

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영성의 힘이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영성 속에서 개인의 영성이 성숙되고 발전되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영성은 그 자체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공동체는 영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영적집합체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영적성장이 영적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나라의 건설이 아닌 개인영혼의 수련의 장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 결과 영성의 균형이 깨뜨려지게 되었다. 개인영성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영성은 개인 영성이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의 장일 뿐 아니라 개인 영성이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이를 수 있도록 각자의 개별적인 개인 영성들이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연합되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함으로써 회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고립된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¹³⁵⁾

이러한 공동체는 미래에 나타날 진정한 공동체의 전형이다. 미래에 나타날 진정한 공동체는 신약성경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모형이 나타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는 오직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공동체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경험해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서 영적치유가 일어나고 죄악으로 병든 사회구조를 치유해나갈 수 있다. 균형잡힌 영성은 개인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을 넘어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구원이나 개인의 삶만의 정당화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영성을 이루어가게 된다.

135) Howard Snyder,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88-91.

제 3 절 신앙생활과 영성

신앙생활은 영성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앙의 생활화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드러나게 된다. 신앙생활이란 생기 넘치게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롬 8:11)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영적비밀을 깨닫게 된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눔과 섬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총체적 영성이다. 본 절에서는 신앙생활과 영성의 관계를 살피려고 한다.

1. 고난과 영성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라, 특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의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영적성숙의 평가는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멸망사라는 책을 쓴 험버트 선교사는 그의 책 속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승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다.¹³⁶⁾ 한국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자기가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 미신적이 된다.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고 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36) 이재철, *회복의 신앙* (서울: 흥성사, 1999), 243.

를 누리게 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따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고난이었다. 복음적인 고난은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적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믿음이다.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관계를 회복한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67).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고 고백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면 고난은 은혜요 축복이다. C. S. 루이스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¹³⁷⁾라고 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영적인 찌꺼기를 없애고 자신의 형상을 그 인격 속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자신을 이기며, 악의 세력을 이기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둘째, 고난을 통해 영적 변화와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 고난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깨닫고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가

137) C. S. Lewis, *고통의 문제*,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2), 141.

는 것이다.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20)고 하셨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왜 고난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성숙시키는 열매를 맺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고백하였다. 고난을 통한 영적변화와 성숙을 체험한자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과 실패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간다.

2. 섬김과 영성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 이러한 상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든다면 ‘십자가와 수건’이다. 십자가는 순종과 복종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상징이고 수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두르신 섬김의 상징이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상적인 권위적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 참된 영적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요 13:1-11).¹³⁸⁾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라고 했다. 예수님은 종의 본성과 자세를 취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이런 말솜으로 표현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138) Paul Ceadar,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선교햇불, 2002), 43.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인간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삶이 필요하다.

섬김의 삶에는 깊은 영성이 요구된다. 섬김과 봉사라는 ‘service’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를 뜻하는 라틴어 ‘세르비레’(servire)에서 나온 말이다. 봉사는 희생에 가까운 개념을 담고 있다. 희생(sacrifice)은 신에게 화목제로 무엇이든 바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세크리피키움’(sacrificium)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한다, 권리의 침해를 허용한다, 보다 큰 가치의 것을 위해 작은 가치를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¹³⁹⁾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태어나듯 이웃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섬김은 영적공동체를 치유하고 묶고 세워주게 된다. 참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구와 갈망을 죽여야 된다. 매일 이러한 욕구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영적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¹⁴⁰⁾

첫째,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다. 함께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봉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이웃사랑의 시작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 돕는 섬김이다.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은 적극적인 도움이 다. 우리의 손이 매일 매일의 도움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행동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메시지를 기쁘게 그리고 신념있게 선포할 수 있다.

셋째,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인내의 짐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

139) 양창삼, *영성회복의 신앙*, 46.

140)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18-145.

스도의 육신으로 인간의 짐을 지셨다. 그러므로 서로서로의 상처와 고난을 감당해주며 우는 이들과 함께 울 때 사랑은 완벽하게 완성된다.

본회퍼가 말하는 섬김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실천해야 될 영성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영성은 말이 아니라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예수의 손발이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심장이 될 수도 있다. 지체 중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적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의 영성이 병들어 죽게 된다. 섬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섬김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영적인 삶이다. 이 섬김의 영성은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영성을 타파하고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것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3. 기다림과 영성

기독교의 복음은 기다림이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간다. 성경에 나타난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깊이를 더했으며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다림과 거리가 먼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 ‘빨리, 빨리’라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들도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보다 급성장이라는 콤플렉스에 빠져있다. 이러한 성장주의 목회로 인하여 기다림의 영성의 축복과 은혜를 빼앗겨 버렸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시 37:7)라고 했다.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좋아지겠지’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

고 의지하는 기다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여야 한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영원히 오실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영성이 있는 자는 말씀에 바라고 기다린다.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성경에 기다렸던 사람들인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둔 역사적 전환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을 기쁨으로 맞았다.¹⁴¹⁾

영성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며 영성이 깊을수록 기다릴 줄 안다. 농부는 기다림을 통해서 가꾸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나무도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숙한 인간관계의 절정도 기다림에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기다림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 있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구약은 초림 예수를 약속한 뒤 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 '약속'인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약속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의 기다림과 그 속성이 다르다.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무엇보다 영적인 삶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삶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듯이, 자녀는 집을 떠났을 때에야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듯이, 또 연인들이 서로 오래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정결케 하는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¹⁴²⁾

141) 양창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삶*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3), 193.

142) Henri J. M. Nouwen, *영적 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1999), 152.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다.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자라고 있는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농부가 씨앗을 심고 조용히 기다릴 때에 아주 강렬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다림은 영적 변화의 삶을 체험하는 기간이다. 기다리는 동안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변화와 성숙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린다고 고백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애 3:24-26). 여기서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기다림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다림은 인내며 인격이다.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요 영적성숙의 길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킨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4. 용서와 영성

영적인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용서이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회개할 생각은커녕 회개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다. 먼저 하나님은 죄값의 고통을 스스로 담당하셨다. 그 결과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마 6:15)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용서의 원천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임을 암시해 준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직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오직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나의 힘으

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셔서 용서의 능력을 내게 주입해 주신다면 나는 주입된 용서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¹⁴³⁾

영적생활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에 세균이 감염된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증거로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관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영적 삶에 있어서 성도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근거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부자유하고 억압당하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로 남을 때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관계의 장애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상처를 갖고 살아가면 영적 생명력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용서 못하는 삶은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죄책감이란 자신의 범죄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마음이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타락의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당한 후부터 모든 인간이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원죄에 의해 생긴 죄책감은 우리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다. 원죄가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는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죄책감은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용서라 함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 의미로서 나를 붙들고 얽어매고 있는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내가 놔 버리면 된다. 사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으면 된다. '놓는다'는 것이 곧 용서이다. 그래서 죄책감과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동시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¹⁴⁴⁾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도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런가?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지지

143) 장경철, *기쁨을 유통하는 삶* (서울: 두란노, 2003), 178-179.

144)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서울: 두란노, 2003), 126.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십자가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십자가 중심의 총체적 영성을 강조하였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의 진수였다. 그의 설교의 핵심도 십자가와 못박힌 예수였다. 스토틀은 바질 구프(Basil Gough)로부터 선물받은 익명의 성구를 침실에 걸어놓고 일생동안 십자가 중심의 삶과 사역을 추구했다.

당신이 이루신 구속의 자유를 전파할 때 당신의 모든 흡인력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독점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모든 심령이 머리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신의 십자가에 나를 숨겨주소서¹⁴⁵⁾

그는 모든 신앙생활 영역에서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능력인 까닭은 용서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하셨던 말을 기억해보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십자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체험했을 때 그 때 온전한 용서의 능력이 나온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용서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문제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문제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¹⁴⁶⁾

그러므로 영적 삶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사건이다. 영적 삶에 있어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을 고통스런 과거로부터 자유케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답아갈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

145) John Stott,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2), 335.

146) 장경철, *기쁨을 유통하는 삶*, 180.

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이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다. 영혼 깊은 데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영혼 깊은데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 속이 허탈하고 어딘가 모르게 냉랭하다. 뜨겁지 않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¹⁴⁷⁾ 용서는 회복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회복이다.

영적생활에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할 명령이다. 왜냐하면 용서한 만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베푸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라고 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용서는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영성의 열매일 뿐이다.

제 4 절 삶으로 나타나는 영성

기독교영성이란 삶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회복이다. 영성은 삶이며, 삶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다. 이 세상의 가치윤리보다 더 높은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삶을 떠난 영성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의 껍데기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의미,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과 그 열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삶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다.

1.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기독교 영성은 성령 하나님이 그 중심이다.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누구든지

147) 크리스티 김, *인생의 음어리를 풀다* (서울: 규장, 2003), 49.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나타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성 있는 자의 삶이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영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중심이 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성자께서 구원의 화해라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셨을 때 성령을 대신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땅위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늘과 땅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예언자들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셨으며,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리더십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임하셨던 성령의 거하심은 삼손과 사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하시게 되었다.¹⁴⁸⁾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영적인 삶이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16)고 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곧 성령의 임재(내주)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이다. 성령은 곧 능력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포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성령의 의지

148) Boa, *기독교 영성, 그 열 두 스펙트럼*, 332.

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뜻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적인 욕망은 다르다. 육체는 세상 지향적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결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후 3:18).¹⁴⁹⁾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충만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충만은 반드시 외적인 상태로 표현되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언급했지만 동일한 문맥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성령충만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표현했다. 즉 성령의 능력은 그 심령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드러나게 된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 말씀은 능력이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성이다. 영성 있는 삶이란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승리를 맛보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다.

2.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

영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개선시키며 영성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면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공동체 내에서 실현되는 영성의 열매이다. 성령이 함께하며 영성의 삶으로 변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왜냐하면 모든 영성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얻고 누리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다. 영적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따라 그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실행해나가는 삶이다. 이러한 삶이 수반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바울은 갈 5:22

149) 김상복, *성령님 사랑해요*, 140.

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한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은 인격적이며 성품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맺힌 것은 아니지만 열매가 자라고 있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께 순복함으로 성품이 변화될 때 비로소 영성이 깊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 성품변화를 주는 성령의 내적사역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근본사역이다. 이것이 없이 성령의 외적사역인 능력만 있으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¹⁵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소유 중심적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방언과 예언을 잘한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성령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간구하기보다 나의 나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라고 말씀하셨으며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라고 하였다.¹⁵¹⁾

변화는 사실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 잘못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후회를 낳지만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낳는다. 변화무쌍이라는 단어는 변화가 갖는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변화의 때와 모습은 결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변화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이며, 때로는 다가갈수록 저 멀리 도망가는 무지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희생을 해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영적성숙이라는 것은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붙잡는 능력과 비례한다.¹⁵²⁾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성령께 달려있다.

150) 홍성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131.

151) 양창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끄는 삶*, 169.

152) 오정현, *잡들지 않는 사역자*, 237.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점에서 영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해야 진정한 변화가 따른다.

영성의 열매는 변화이다. 흔히 영성의 범위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하면 말씀과 기도에 능한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전인격적이요 총체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영성은 경건훈련이나 습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건훈련과 영적체험, 교리와 신학체계의 뚜렷한 정립, 그리고 사랑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들이 다양하게 포괄된다. 쉽게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변화의 삶이 영성의 열매이다. 영성의 요소는 훈련보다 성령의 통치에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영성의 핵심은 외적인 삶의 형태보다 전인격적 변화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올바르게 세워진다.

3. 비전에 이끌리는 삶

비전이란 말은 ‘본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지오(visio)’에서 나온 말이다. ‘비지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비전은 현재의 삶보다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비전을 갖는 사람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있고 그 먼 곳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수반하기에 비전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과가 실현된다.

그러나 비전은 야망이 아니다. 야망은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비전과 구별된다. 그런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전과 야망이 흡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은 야망이 될 수 없다. 먼 곳을 보지만 그 시선이 닿는 곳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다. 따라서 좀 더 밝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자기개발이 없고, 오직 도구화된 인간의 욕망만이 존재한다. 욕망의 도구가 된 인간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인다.¹⁵³⁾

그러나 비전에 이끌리는 삶에서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비전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비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때 시선을 먼 곳에 두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삶으로 인정하기에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무책임한 도피주의로 회피하려는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요엘서에서 나타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욘 2:28)라는 이 말씀은 삶의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사람들이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이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비전은 장기적인 계획도 아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겠는가?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민하게 살피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시대, 나라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도 이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¹⁵⁴⁾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긍정적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할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스도인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소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다.

결국 비전은 영성이다. 영성이 있어야 비전을 갖게 된다. 그 비전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이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153) 이재철, *청년야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서울: 홍성사, 2000), 73.

154) 오정현, *잠들지 않는 사역자*, 237.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의 청중, 즉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 분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자다.¹⁵⁵⁾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말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의 성격이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의 열정과 지성도 아니었다. 사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없다. 그가 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았던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대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영성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비전은 나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영원한 비전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할 때 총체적 영성으로 세워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총체적 기독교영성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원천이다. 하지만 영성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영성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본 장에서는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경건과 능력에 대한 이해와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영적 삶의 실체인 믿음, 기도, 말씀, 제자훈련, 공동체영성,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섬김,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고 총체적 영성의 실체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전인격적인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 비전에 이끌리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국 영성은 단순한 개인적 훈련이 아니라 전 삶을 포괄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 영성이어야만 한다.

155) Os Guinness, 소명, 홍병룡 역 (서울: IVP, 2002), 116.

제 6 장 결 론

21세기 우리시대의 기독교의 화두는 단연 영성이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영성시대란 영성이 극대화된 시대란 의미이며 동시에 참된 영성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의미이다.

최근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는 현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세계의 정보를 한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과학의 시대가 되었지만 과학기술 문명의 추구만으로는 인간의 영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외적인 풍요 속에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영적갈등을 느끼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침체는 영성적 기능의 퇴조와 맞물려 있다. 한국사회의 비영성적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회의 영성적 퇴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영성을 위한 훈련방식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요법적인 분석이나 자체수련 등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힌두교에서 들어온 초월명상의 방식조차도 여과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적 영성훈련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학적 훈련과 사고를 갖지 못한 일부 목회자들마저도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위한 기능개발로서 영성훈련이 동원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톨릭 전통에 영향을 받은 영성훈련방법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성을 금식, 기도, 명상, 고백 그리고 금욕주의적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나 삶의 변화를 무시한 채 신적 존재와의 신비한 교통을 통해 신비한 능력을 수행하고 초자연적 능력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영성운동은 샤머니즘을 비롯한 한국전통종교의 영성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신비적 치유를 현혹하는 기도원, 무분별한 성령운동, 비성경적 예언까지도 수용하여 극단적인 종말론의 수치를 초래한 신비주의적 신앙형태는 심각한 복음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 영성의 시대적 요청은 그릇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비성경적 영성에 지배당하기도 한다.

본고는 혼란스러운 영성의 시대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참된 의미와 삶을 동반한 총체적 영성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 영성회복을 위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으로써 쓰였다.

2장에서는 영성의 개념적 이해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영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영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으며, 3장에서는 교회역사 속에서의 탈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시대마다 비성경적인 영성운동이 나타났으며 때로는 신비적이고, 사변적이며, 교권위주로 진행되면서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계시성을 뛰어넘는 불행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탈기독교 영성 중 18세기 계몽주의는 복음과 성경에 입각한 초월적 계시를 상실하였고 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망각한 영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기 자유주의 영성은 성경의 계시를 부인하는 극에 달했으며 현대에도 탈기독교 영성의 흐름이 주도되고 있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 속에 나타난 영성생활의 실제적인 고찰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한국교회 영성의 양극화현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영성을 살펴보았다. 오랜 역사 속에 고착되어 온 종교적 모양과 혼합된 비성경적 영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독교의 배타성과 분파주의,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총체적 기독교 영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성에 대한 실천적 조명인 균형잡힌 영성운동,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영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영성연구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참된 영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총체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회복이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삼위일체시다. 삼위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

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됨의 성품에 맞서 반항하고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악을 위해 놀라운 값을 치르셨고 “새롭고 산길”(히 10:20)을 내사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셨다.¹⁵⁶⁾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성의 주제는 ‘관계’이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서 궁극적인 흥만과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회복이다.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변화된 삶)이다.

둘째, 총체적 영성은 자기부인의 삶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삶은 자기부인의 삶이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고 말씀하셨다. 자기부인의 삶은 자기학대나 자기비하가 아니다. 자기부인의 길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때 자기부인의 삶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궁극적으로 자기부인은 소극적인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이다. 자기부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삶이다. 100퍼센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동시에 100퍼센트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러한 영성을 프란시스 웨퍼는 “수동적 적극성”라고 했다.¹⁵⁷⁾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세상을 도피하거나 좌절에 빠져있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자기부인의 길은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요구 앞에 순종해가는 길이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영성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총체적 영성은 지성과 감성의 균형이다.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 균형은 자연스러움이고 질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균형의 극치를 이루었다. 비움과 채움, 텅빔과 흥만, 버림과 취

156)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29

157) 성인경, *대답은 있다*, 47.

하심의 조화를 이루셨으며 비하와 존대, 섬김과 섬김 받음에 조화를 이루셨다.¹⁵⁸⁾ 신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상응하는 전인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성장은 세 기능의 종합적 발전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체적 기독교 영성은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되며 성숙된다.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식적 영성'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체험적 영성', 곧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다. 기독교 영성은 지성과 감성의 조화와 균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증시켜 나아가게 된다.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하며 그 아는 것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 사도바울의 신학은 체험적 영성에서 시작한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랐다(빌 3:7-9). 또한 지성과 감성이 하나 되기를 강력하게 추구했다(엡 4:13-14).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시키겠다는 강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한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¹⁵⁹⁾ 그러므로 총체적 기독교 영성은 지성과 감성을 포함한 영혼전체의 성품을 가리키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지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참된 영성의 길을 갈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총체적 영성의 삶이다. 기독교 영성은 내적인 경건훈련을 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총체적 삶이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수직적 영성의 힘이 있어야 하고, 인간과 세상 속에 왜곡된 관계를 수평적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총체적 영성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허망하고 더러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참 진리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158)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23.

159) 구대일, *거룩한 몸부림*, 85.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전을 심어놓으셔서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선교'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선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은 초월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출범하였고,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게나마 반영하고 실현해야 한다.¹⁶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총체적 영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삶을 동반한 총체적 기독교영성'을 미흡하나마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영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영성이 어느 특정 종파의 소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하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삶을 기대하면서 논문을 맺는다.

160) 김세윤,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0), 55.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성인경, "목회자의 바른 영성을 회복하자." *목회와 신학*, 1999년 1월호.
-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1998.
- 구대일, *거룩한 몸부림*, 서울: 멘토, 2005.
-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_____, *영성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_____,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2.
- 김군진, *성령의 본체,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 김남준, *깨으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김상복, *성령님 사랑해요*, 서울: 햇볕, 1993.
- 김세운,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0.
- _____,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수학, *개혁파 역사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_____, *세계교회사*, 대구: 보문출판사, 1997.
- 김승욱, *허심유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김영봉, *예수의 영성, 기독교 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성경과 신학* 7 (1992): 394.
- _____,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김원식, *한국 크리스찬의 현주소*,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_____, *구약성서에 나타난 영성개념*, 서울: 기독교사상, 1988.
-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민경배, *한국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_____, *한국기독교회*, 서울: 기독교서회, 1995.

- 박근원. "제3세계의 교회와 영성." *기독교 사상*, 1987년 6월호.
 _____, "한국기독교 영성의 뿌리." *기독교사상*, 1987, 7월호.
-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7.
- 서재성.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2.
- 성인경. *대답은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손경구. *사명*. 서울: 두란노, 2002.
-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99.
- 송삼용. *영성의 거장들*.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 신성종 외.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혁시킨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 양창삼. *당신 안에 있는 영성을 깨워라*. 서울: 나침반, 2003.
 _____, *영성회복의 신앙*.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_____, *하나님의 비전에 이끄는 삶*.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3.
- 엄두섭. *영성생활의 향기*. 서울: 은성, 1994.
- 오성춘. *영성목회*.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1990.
- 오정현. *잠들지 않는 사역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육한흠 외. *현대교회와 성령운동*. 서울: 엠마오, 1987.
 _____,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 유동식. "민족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79): 107.
 _____,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서울: 두란노, 2003.
- 이관수. "참된 영성의 점검과 과제." *신학지남* (1994 여름): 56-57.
- 이동원.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 서울: 두란노, 2004.
-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7.
- 이상화. *교회성숙분석리포트*.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이완재. *영성신학탐구*. 서울: 성광문화사, 2001.
- 이장식. "기독교 영성의 사적 고찰." *신앙과 신학* 4 (1988): 118.
- 이재철. *회복의 신앙*. 서울: 흥성사, 1999.

- _____, *청년아 몰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서울: 홍성사, 2000.
- _____, *참으로 신실하게*. 서울: 홍성사, 2002.
- 이한수, *그리스도와 성령*.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 이형기, *기독교회사 I*.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4.
- 임영수, *삶 그리고 성령*. 서울: 홍성사, 1993.
- 장경철, *기쁨을 유통하는 삶*. 서울: 두란노, 2003.
- 장경철, 전병욱, 강준민, *삼석영성*. 서울: 두란노, 2005.
- 정용석, 이후경, *기독교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 정장복, *설교학서설*. 서울: 엠마오, 1995.
- 조용기, *5종 복음과 삼박자 축복*. 서울: 영산출판사, 1983.
- 차종순, *교리사*.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3.
-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종만, 1987.
-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2.
- 크리스티 김, *인생의 음어리를 풀다*. 서울: 구장, 2003.
-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 정신과 성령*.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5.
- 홍성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0.
- 홍치모, "성령과 경건 운동의 사적고찰," *신학지남* (1979 봄): 60.
- 황승룡, *개혁교회와 성령*.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황화자, "기독교 영성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교육* (1987): 2.

2 번역서적

- Barton, Stephen C. *사복음서의 영성(The Spirituality of the Gospels)*. 김재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Boa, Kenneth. *기독교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역. 서울: 디모데출판사, 2005.
-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5.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상, 중, 하*.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Ceadar, Paul.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선교햇불, 2002.

- Come, Arnold B. *인간의 영과 성령*. 김성민 역.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4
- Dor, Donal. *영성과 정의*. 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0.
- Foster, Richard. *영성훈련과 성장*. 권달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Gonzalez, Justo L. *기독교사상사 Ⅲ*.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 Guinness, Os. *소명*. 홍병룡 역. 서울: IVP, 2002
- Hanks, Geoffrey.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Lewis, C. S. *고통의 문제*.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2
- Macaulay, Hanald and Barrs, Jerram. *인간, 하나님의 형상*. 홍치모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7.
- Nouwen, Henri J. M.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 _____. *영적 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1999.
- _____. *영성에의 길*. 김명희 역. 서울: IVP, 2002
- Peterson, Eugene. *균형, 그 조용한 목회혁명*.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Praamsma, L. *20세기 교회*. 박종철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의회, 1986.
- Richard, Joseph.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의회, 1986.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Stott, John.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Thomas, Gary. *뿌리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전이우 역. 서울: CUP, 2004
- Tozer, A. W. *경건생활의 기초*. 강귀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3. 외국서적

- Alexander, Donald L., ed. *Christian Spirituality: Five view of Sanctification*. Dow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 Aumann, Jordan. *Spiritual Theology*. London: Sheed and Ward, 1993.
- Eliade, Mircea.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Translated by W. R. T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Eusden, John and Westerhoff, John, *The Spiritual Life: Learning East and West*. New York: Seabury Press, 1982.
- Evance, D. *Spirituality and Human Natu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Fackenheim, E. *God's Presence in History*. New York: Harper and Row, 1970.
- Hansen, Bradley. *Christian Spirituality and Spiritual Theology*. Dialogue 21, 1982.
- Kenneth, Leech. *Soul Friend: The Practice of Christian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9.
- McGrath, Alister E. *Justification by Faith: What It Means for Us Today*.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88.
- Moltmann, Jürgen. *The Source of Life*. Translated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77.
- Packer, James.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London: Inter Varsity Fellowship, 1958.
- Raitt, J. *Christian Spirituality: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7.
- Rice, H. L. *Reformed Spirit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91.
- Shaeffer, F. A. *True Spirituality*. Lond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71.
- Stott, John.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2.
- Weber, D. D. *A Passion for Christ: An Evangelical Christolog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Vita of
Yong Gyu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a Chang Presbyterian Church, Daegu,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October 9, 1960
 Marital Status: Married to Suk Hee Jang
 with two Children, Ha Eun and So Myung
 Home Address: #235-8 Yong Gei-Ri , Ga Chang-Myun, Dal
 Sung-Gun, Daegu, Korea
 Denomination: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October 6, 1991

Education:

B. A. An Dong University, Gyeongbuk, 1983
 M. Div. Chongsh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M. A. Kei Myung University, Daegu, Korea, 199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6

Personal Experience:

199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a Chang Presbyterian
 Church, Daegu, Korea